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6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창원상남지점 거래고객
(주)삼백육십오 구수룡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군산수송지점 거래고객
(주)대운산업개발 함경식 대표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 04 여성시대 특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 12 이달의 편지
'첫 주례'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삼백육십오 구수룡 대표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대운산업개발 함경식 대표
- 80 2024 신춘편지쇼 수상작
'아버지의 순례길' 외
- 111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작지만 큰 기쁨
-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벌써 일 년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6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정민, 전현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특 집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망슈퍼 아주머님

유경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꼭 뵙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어렵던 시절 맞벌이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으며 신세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항상 잊을 수 없는 분, 슈퍼 주인 아주머님이 계십니다.

당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저희는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6학년인 큰아이 졸업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저희 생각에도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출근하면서 큰아이를 서울로 등교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하교 후에 저희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있을 곳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슈퍼 아주머님께서 선뜻 주중에는 돌봐줄 테니까 주말에만 데려가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도리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너무 폐를 끼친다는 생각과 아이도 낯선 가정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 결국 전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찾아뵙고 감사드린다는 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얼마 전 큰아이와 우연히 그 시절 얘기를 나누다 슈퍼 아주머님 얘기도 나왔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슈퍼에는 오락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그곳으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그 집에 머물며 약간의 돈을 훔쳐 오

락을 하는 걸 슈퍼 아주머니께서 아셨답니다. 아들은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아들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며 좋은 말 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부모인 저에게는 물론 동네 누구에게도 아들의 잘못을 말 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된 겁니다.

큰아이는 현재 다섯 아이의 아빠로 성실한 가장으로 외국에서 사 업하며 잘살고 있습니다.

질책보다는 너그러운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 천호동 소망슈퍼 아 주머니께 늦게나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들 인생에서 많은 교훈 이 되었을 겁니다.

슈퍼 아주머니님! 건강하신지요? 많이 뵙고 싶습니다. 고마운 마음 전 합니다.

[추신]

저는 1986년부터 91년까지 천호동 우체국에서 근무했는데 경기도 산본 신도시에 입주하게 되어 과천우체국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천호 동으로 출퇴근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당시 천호동 파이롯트 회사 건너편에 살았는데 정말 고마운 분에게 감사드리지 못한 일이 가슴에 남아 있고 또 이제야 들은 아들의 잘못 을 그렇게 용서해 주신 슈퍼 아주머니님이 더 그리워져서 글을 올려보 니다. 그분과 연락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편의점

이경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결혼 후 경력 단절녀였던 제가 귀하게 다시 얻게 된 직장은 편의점입니다.

때는 저녁 8시, 학교와 학원을 마친 학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르르 몰려와 편의점은 한바탕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딸랑딸랑~’ 가게 출입문이 열리더니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5, 6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이렇게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둘은 컵라면 두 개를 계산하고 테이블로 가서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먹고 있을 때 ‘딸랑딸랑~’ 또 가게 출입문이 열리더니 이번엔 한 외국인이 들어 왔습니다. 그 외국인 손님어 커피를 계산하고 나가려는 찰나 어린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형아, 나 스프를 반밖에 안 넣었는데도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물 좀 줘. 물! 너무 매워~. 아~ 매워~.”

“야! 물이 어딴냐? 그냥 참아! 좀 있으면 괜찮아져. 라면 산다고 돈 다 썼단 말이야!”

“아~ 형아. 나 맵다고 맵단 말이야. 잉잉~”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외국인 손님이 “이거, 계산!”하면서 재빨리 작은 생수 하나를 가져와 그 남자아이에게 뚜껑을 따 주면서 “이거 먹어요” 합니다. 두 아이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따뜻함을 베푸는 분이 있다는 점에 한번 놀라고 그 따뜻함을 베푸는 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와우!”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니 그 외국인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즈벡... 아들... 생각...났...어...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타지에서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을까요. 그 외국인 손님은 1+1 소시지도 계산하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쥐여 주는 웃으면서 나가셨습니다.

이런 해피 바이러스에 저도 전염돼서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제 지갑을 열리라 다짐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한 여자 손님이 오셔서 2+1 행사하는 점을 서른 개나 담으셨어요. 제가 “점을 이렇게 나 많이 사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하자 그분 하시는 말씀.

“제가 직업상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요. 톨게이트에서 톨비 계산하는 분들이 피곤해 보이면 하나씩 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몇 푼에 서로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 같은 아이들에게 생수에 소시지까지 주신 센스 만점 그 외국인과 톨비 계산하는 분들의 피곤함까지 생각하는 자상함 최고의 여자 손님. 자선이라는 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여성시대 당당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저와 같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지 않으실래요? 저부터 먼저 둘러볼게요.

‘두리번~ 두리번~’

그리고요 저도 작년에 ‘헌혈 100회 기념 유공장’을 받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거 제 자랑 맞습니다.

뚜벅이의 즐거움

애청자

나는 자동차 사고 이후 충격을 극복하지 못해 뚜벅이가 되었다. 다섯 정거장 정도는 당연히 걷는다. 다리에 힘도 오르고 자연의 변화도 잘 느껴진다. 어제는 뚜벅이라서 느끼는 즐거움이 배가 된 날이다.

안동 시내에서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다. 두 정거장 지나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타서 앞쪽에 앉았다. 버스 기사님이 지갑을 꺼내는 할머니를 보며 “타기 전에 카드 먼저 꺼내가 타소” 하니 카드를 꺼낸 할머니가 일어서기가 부담스러웠는지 앞에 여학생한테 카드를 건네고 여학생이 찍으니까 잔액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났다.

“에이구~ 어야노. 미안이더, 다음에 넘시더.”

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바로 내 앞에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벌떡 일어서더니 카드를 찍으며 “내가 내니더” 하니 할머니는 “아이구~ 사장님 고맙니더” 하고서는 그때부터 옷에 주머니와 가방을 살살이 뒤졌다. 그리고 동전 몇 개를 꺼내셨다. 할머니는 “전달해 주소” 하며 뒤로 넘겼다. 서 있는 사람들까지 전달에 동참하여 웃으며 아저씨에게 돈이 전달되었는데 아저씨는 “괜찮니더” 하며 다시 앞으로 전달되었다. 이때 버스에 탄 사람들이 거의 다 웃었다. 할머니는 “아이구, 고마워 어야노” 하며 자꾸 뒤돌아보셨다.

내 가방에는 버스를 타기 전에 선교하려는 아주머니가 준 사탕과 초콜릿이 예쁘게 포장된 꾸러미가 있었다. 벨을 누르고 미리 일어서는 나는 내리기 직전에 “저 아저씨 주소” 하며 할머니에게 그것을 드렸다. 아마도 한 번 더 버스 안에서 따스한 웃음이 일렁였을 것 같다.

<남자의 고백>



[4056] 아내의 68회 생일입니다. 81년에 결혼할 때 프러포즈를 못했는데 아내 생일을 맞아서 여성시대를 통해 마음 전합니다. 2년 1남을 잘 키워준 당신에게 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했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당신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1018] 멕시코 몬테레이 출장 중입니다. 온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네요. 한국엔 봄꽃이 만발이라던데 꽃처럼 이쁜 우리 여보와 함께 보고 싶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미정 씨.



[9208] 충남 아산에 사는 40살 당당입니다. 아내가 지금 임신 16주 차이고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 전 프러포즈할 때 한강에서 작은 요트를 빌려서 꽃과 케이크, 와인을 준비했는데 당일 요트 타고 출발하려니까 선장님이 갑자기 요트가 고장 났다고 하셔서 계획한 프러포즈를 다 망쳤더랬지요. 여성시대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배 속에 있는 용용이 튼튼하게 잘 키우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1045] 저는 갈치 낚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45만 원 정도 하는 중고 릴을 15만 원에 지인에게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에 프로 낚들이 가지고 다니는 고가의 장비를 보니 너무 위축돼서 해외직구로 180만 원 하는 전동 릴을 구입해서 두 번 사용 후 지금까지 감춰놓고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낚시 철이 코앞인데 자수하고 광명을 찾고 싶습니다. 여보, 김 여사 자수합니다.

목요일 남성시대 시간에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 | | |
|----------------------|------------------|
| 12 첫 주례 | 37 보라색 바늘꽃 무늬 이불 |
| 14 내가 보살로 사는 이유 | 41 용자 씨 이야기 |
| 17 진심으로 사과했더니 | 44 세대 분리 |
| 20 여성시대 참 고마웠습니다 | 48 생일 챙겨 주는 모임 |
| 22 동전은 더 이상 여행하지 않는다 | 51 호박당구장 영웅들 2 |
| 25 밀당 육백 | 56 사춘기와 갱년기 |
| 29 나의 독립은 진행 중 | 59 4년 만에 풀린 된장찌개 |
| 33 사감 선생과 아이들 | |



Letter 01

첫 주례

백상현 | 대구광역시 서구

저 장되지 않은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재민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순간 십여 년 전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라는 게 어렴풋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녔던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겠다고 한다. 학원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학원을 운영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고 학원생들이 한 번씩 연락이 와서 만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오래 전 학생들의 연락은 처음이었다.

학원에 찾아 온 아이들은 모두 5명이었다. 어느덧 30대가 된 아이들이었지만 첫눈에 그 시절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한눈에 알아봤다. 다들 초등학생 때부터 고3 때까지 6년 이상 오랫동안 학원을 다닌 아이들이고 그 학생들의 성장기를 쫓 봐왔던지라 약간의 겉모습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예전 그대로였다.

한 명씩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에 수빈이가 인사를 했다. 언뜻 그 당시 재민이랑 유명한 커플이었다는 게 생각나서 재민이에게 넌지시 농담 삼아 “그때 너희 둘 잘 지냈잖아. 지금도 잘 지내니?”라고 물으니 옆에 있던 동수와 지훈 그리고 주호가 일제히 “선생님, 애네들 아직까지 잘 지내요. 곧 결혼까지 한답니다~” 폭탄선언을 했다. 깜짝 놀라서 둘을 번갈아 마주보며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자리를 옮겨 학원 근처에 있는 선술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타임머신을 타고 십여 년 전으로 이동해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재민이가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롤모델이세요. 정말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빈말이라도 듣기 좋네.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니 수빈이랑 같이 눈을 반짝이며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저희 결혼식 때 주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하는 거다. 내 나이 아직 반백 살이 되지 않아 주례라는 이야기가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렸다. 헛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나이를 생각해야지. 아직 주례를 볼 정도의 나이는 아니란다” 말했는데 재민이와 수빈이는 정말 진지한 눈망울로 날 쳐다보면서 재민이가 다시 “선생님이 딱이예요. 우리 학창시절의 모든 걸 알고 수빈이를 만난 곳도 학원이고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의 제2의 부모님이 나 마찬가지로 부탁드립니다.” 거의 조르다시피 부탁을 하기에 चु기름 빌려 나도 모르게 “그래. 그렇다면 선생님이 최연소 주례가 되어 볼까!”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한 승낙을 한 거 같아서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부탁하면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의외의 반응으로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생애 첫 주례를 멋지게 해야 할까보다!

Letter 02

내가 보살로 사는 이유

김영아 | 경기도 광명시 신촌로

한 국인이 자주 하는 말실수 가운데 하나는 ‘다르다’와 ‘틀리다’이다. ‘다른’ 것은 서로 같지 않은 것을, ‘틀리다’는 썬이나 사실 따위가 맞지 않고 옳지 않다는 뜻을 가진다. 영어로 각각 ‘different’와 ‘wrong’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여기며 산다.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TV에 나오는 전문 방송인들마저 다른 것을 틀리다 혹은 틀린 건 다르다고 혼재해 쓰는 것을 목격한다.

결혼 N년차, 나는 정말 나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교우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음주가무 특히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에 나는 어떠한가? ENTJ 혹은 ENTP적인 성향을 가진 나는 특히 앞에 E가 꽤 센 편이다. 최근 소모임을 시작하며 처음 보는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난 정말 ‘외향적’이라는 걸 느꼈다. 꾸준

히 오랜 친구도 나름 있는 편이고 그리고 나는 음주가무 중에서 특히 술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이렇게 양 극단에 서 있는 듯한 남녀가 어떻게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을까? 부모님들 소개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와 같이 살던 할머니께서 작고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내가 가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함께 그의 조모님 영안실에 다녀오고 나자 내 인정과 고민도 필요 없이 그와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다. 또 한 달쯤 지나 그가 조심스럽게 해외 거주에 대한 바람을 말했을 때 흔히 말하는 ‘운명적인’ 결혼이라고 느꼈다. 그때만 해도 극보수적이던 올 엄마 아빠로부터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해외를 혼자? 호적 파버린다!’ 소리까지 들던 시기다. 그래서 그가 “아일랜드 가볼래요?” 했을 때 나는 심장이 벅차올랐다. 이 남자구나, 내 운명의 남자!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덜컥 시작한 해외살이에서 정말 많이 ‘다름’을 느끼고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잠깐의 데이트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사건건 어쩌면 그렇게 매사가 나와 다른지 정말 불가사의했다.

밥에다 국물을 부어 먹는 습관, 잘 먹다가 왜 꼭 마지막에 한 수저 남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커다란 빨래통을 일정한 장소에 두었음에도 벗은 양말은 화장대 밑이나 침대 구석에서 발견되곤 했다. “청소 좀 해요~” 하면 열 번을 말해도 거실 베란다 창문 꼭 닫힌 채 청소기를 돌리고, 과자 먹은 손 그대로 입고 있는 잠옷 바지에 쓰윽 닦고, 코푼 휴지는 왜 휴지통이 아닌 변기에 버리는지…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다름이 용납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잠깐씩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먼 타국이라 선택지가 없기도 했고 그런 투정을 하기엔 해외에서 적응하는 게 급선무이기도 했다.

이런 다름을 “자기는 틀렸어!”가 아니라 “당신은 참 다르군요~”라고 인식하게 된 건 언제였을까? 해외살이는 아쉽게 실패로 끝나고 귀국 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촉각을 세우던 그의 행동에 대해 내가 무뎠던 것일까? 아님 ‘사람 바꾸는 거 아니다’라는 어른들 말씀에 내가 순응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여전히 친정 모임에 가서도 입 꼭 닫고 있다가 물어봐야 대답하는 사람이고 친구는 거의 없어 회사와 집밖에 모르고 한여름에 들이켜면 속이 땡 뚫리는 맥주도 한 모금 겨우 마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말실수가 거의 없고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으며 내가 언제 누구랑 얼마나 술을 마셔도 걱정 또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나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 잘 살고 있다. 상상 은 자유고 공짜니까 나랑 비슷한 성향의 외향적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과 살아보면 어떤 기분이고 모습일지 가끔은 궁금하기도 하다. 아마 그래도 서로 다른 차이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틀렸다 규정하겠지?

그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는 걸 깨닫는 데는 결국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 뒤겠지? 결국 돌고 돌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오래된 유행가 제목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누구랑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다르다는 차이는 그 어떤 잣대를 가져와도 누군가에게나 존재하는 법! 틀린 건 답안지거나 존재하는 것이지 인생에서 정답이 아닌 삶이란 없다.

미처 넣어 놓지 못하는 그의 양말은 조용히 내가 빨래통에 넣는다. 그가 청소기를 돌리면 나는 아무 소리 없이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만다. 오늘도 욕실 변기에 똥똥 떠 있는 휴지를 보며 레버를 내린다. 나는 점점 해탈의 경지를 넘어서는 보살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Letter 03

진심으로 사과했더니

정순금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20 03년 10월에 많이 놀랐던 일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소일 거리로 작은 밭을 사서 다녔는데, 그날따라 부슬부슬 비가 내려서 일은 못하고 농막에서 아래 밭 어르신과 한잔하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은 다친 사람을 구급차에 태워 보내고 본인은 지금 파출소에 와있다고 전화를 했더군요. 남편은 상대방 남자분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나는 파출소로 달려가서 다친 남편을 동네 병원에 입원시키고 피해자분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족들과 의사 간호사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날은 피해자분 옆에는 갈 수 없었고 이튿날 다시 또 찾아갔습니다. 병실로 찾아가 “저기… 많이 힘드시죠?”하고 물으니 다친 그분이 고개를 돌려서 누구냐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사고 낸 사람의 안사람입니다” 하니까 고개를 획 돌리더군요

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실수로 인해 그분을 다치게 해서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집에 와 있는 중에도 아파서 누워 있던 그분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부인이 없고 노부모님과 7살 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간호하던 분은 형수나 제수씨일 거라는 말을 듣고 내가 가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간병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에게는 틈을 주지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분께 믿음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들 셋을 불러서 문병하게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함께 가서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곁을 주지 않는 그분이 가해자인 남편을 보면 더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은 차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몇 번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니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조금씩 제가 수발을 들게 허락하고 아주 조금씩 대화도 하고 그날 사고 정황을 말해 주기도 하더군요.

3주쯤 지나서 담당 의사가 수술 날짜가 잡히면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집에서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서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퇴원하고 작은 병원으로 옮기시는 걸 도우려고 서둘러 갔더니 처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오셨나며 저를 반겨주더군요. 함께 퇴원하여 동네 병원에 입원하고 짐 정리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아주머니~”하고 부르더니 “댁에 가서 아저씨한테 합의서 써서 오라고 하세요”라고 합니다.

“네? 아직 수술도 남았는데 벌써 합의서를요?”

남편에게 와서 그 얘길 전하니 남편이 합의서를 써주면서 금액은 그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자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분께 금액은 마음대로 쓰시라는

남편의 말을 전하고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금액을 쓰는 동안 나는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아주머니, 이 합의서를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주시고 이제 그만 댁으로 가세요” 하는 말에 눈을 떠서 액수를 봤는데 적혀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며 우리 애들까지도 합의금이 꽤 될 거라 했는데 턱도 없이 금액이 적은 겁니다. “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기간이나 부모님하고 상의도 좀 해보셔야...” 말했더니 괜찮다 하더군요.

합의서를 경찰서에 갖다주고 집으로 가던 중에 우리 둘째 아들 나이의 그분이 입술이 다 터져서 너털너털해진 게 기억나 입술 크림 하나 사고 비타민 한 세트랑 간식거리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댁으로 가시라 했는데 왜 또 왔냐며 놀라더군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요. 치료 잘 받고 수술 날짜 잡히면 그때 꼭 전화주세요” 하고 돌아서는데 그분이 “아주머니~” 하고 부르더니 “아주머니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시네요” 하는데 집에 오는 내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남편이 사고를 내어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나이 많으신 부모님과 어린 딸을 데리고 열심히 사는 분을 다치게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분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여서 더 그랬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으니 간병사를 써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전 주공아파트에 살던 분들인데 지금은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다시 통화라도 한 번 하고 싶네요. 그때는 정말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Letter 04

여성시대 참 고마웠습니다

이승일 |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여성시대와 함께한 25년, 양희은 씨가 여성시대 진행을 맡는다는 소식을 듣고 먼지가 덮인 카세트 라디오를 꺼내서 먼지를 털고 반찬거리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었지요. 참 고마웠습니다.

아들의 고3 때 이야기부터 친구들과 30년 만에 수학여행 다녀온 이야기, 하숙생들과 알콩달콩 사는 이야기... 모두가 여성시대와 함께였습니다. 속상했던 이야기도 마치 친정엄마에게 털어놓듯이 했고 좋았던 이야기로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의 축하를 받았었지요.

그동안 쌓였던 글을 잘 보관해 주셨던 여성시대 덕분에 심플하고 산뜻한 수필집이 '건빵바지와 앞치마'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루하던 내 삶이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니다.

심지어 어떤 블로거는 제가 언덕을 넘어 산을 넘다가 제가 큰 산이 되어 버렸다고, 건빵바지와 앞치마를 입고 그 산에서 너울너울 춤을

준다네~ 마치 희랍인 조르바처럼! 세상에나~ 자유인 조르바처럼 느껴졌다는 극찬도 받았습니다. 여성시대 덕분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어요. 오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더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저를 사랑하는지 꿈에도 몰랐던 걸 '암'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거든요.

저에게 거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했고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오늘 아침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시신 기증을 했으므로 조문을 받지 말라고 했더니 그건 남은 자의 몫이 라나요.

영정사진이 없다고 위문 온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같이 찍었던 사진 중 예쁜 걸 골라서 초상화로 만들어 준다네요. 제 딸이 영정사진 만들러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냐면서요. 배려하는 마음에 끝까지 감동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약 3주 정도, 어쩌면 2~3일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실 천정에 쓰여 있던 성경 구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를 보면서 양 눈가로 눈물이 쪼르르 흐르던 날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했습니다.

김일중 님께서 여성시대 데뷔하신 날 제 글을 처음으로 읽어 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로. '의자'라는 시를 소개해 주셨고요. 양희은 님이 소개하는 목소리는 제가 말하는 거와 흡사하다고, 마치 제가 말하는 거 같다고 지인들은 말하기도 한답니다.

여성시대 덕분에 25년을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Letter 05

동전은 더 이상 여행하지 않는다

애청자

일 없음에도 마음이 수런거리고 번잡하여 올해 신춘편지쇼 응모는 포기하고 신춘편지쇼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일반 사연 제목에 '여행'을 끼워 넣어본다.

작년 여름 찜통같이 폭폭 찌는 집안의 더위를 피해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카페로 갔다. 이주란 소설집 <별일은 없지요?>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화자인 나와 지인 은영 씨가 빵집에서 빵을 사고 3,500원의 빵값을 500원짜리 네 개와 100원짜리 열다섯 개를 내자 사장님이 다음부터 동전 내지 말라고 앞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둘은 집으로 가다 빵 가게로 다시 갔는데 욕이 들려서 그 욕의 대상에 대해 묻자 사장은 자기 아내에게 한 욕이라 변명했지만 화자인 나는 빵이 든 봉투를 내려놓았고 남자는 500원짜리 네 개와 100원짜리 열다섯 개를

세어 은영 씨에게 돌려주었다.>

이 글을 읽고 나자 ‘아, 이거였구나...’ 하고 그 얼마 전에 겪은 도넛 가게 사장님의 미묘한 침묵과 표정이 무슨 의미였는지 답을 알 것 같았다.

우리 집 거실에는 황금 돼지저금통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가 애정 어린 목소리로 “우리 금돼지 많이 먹어라~” 하며 우쭈쭈하는 걸 심심찮게 목격할 정도로 엄마의 사랑과 지폐를 듬뿍 먹고 돼지는 나날이 무거워졌다. 내가 황금돼지를 날름 깨뜨려 그 애가 품고 있던 돈으로 엄마와 여행 가서 맛난 것을 사 먹었는데 당시에는 하하호호 웃으며 좋아하더니 나 모르는 앙금이 남으셨는지 어디서 반투명 플라스틱 빨강 돼지저금통을 가져와 이번에는 지폐를 넣지 않고 500원 동전만 냅다 투입했다. 이 돼지도 어느새 묵직해졌고 제 버릇 남 못 준 나는 또 배를 채 내용물을 털었다. 지난번 황금돼지와 달리 빨강 돼지저금통의 내용물은 바로 쓸 수가 없었다. 동전을 지폐로 바꿔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집 앞 은행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은행이 집 앞에 있을 때는 입구 옆 테이블에 동전을 세는 기계가 있었다. 고객들은 동전 세는 기계를 이용해 요일,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동전을 바꿀 수 있었고 동전이 든 주머니를 들고 기계 앞으로 가면 경비원이 다가와 꾸러미를 받아 기계로 동전 수를 확인하고 은행 창구로 갖다주셨다.

은행이 이전한 곳은 한참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건물 2층으로 내부 공간이 좁아져서인지 동전 기계가 사라졌다. 동전 교환도 수요일 오전에만 가능하다. 동전 주머니를 짊어 메고 은행을 방문했더니 어르신들로 미어터지기 직전이다. 고객 대부분이 어르신이라 한 분당 업무

보는 시간이 꽤 길다. 몇 분 지켜본 결과 대략 한 명에 15분 정도 소요되고 남은 분들을 세어 계산하니 오전에 내 순서가 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왔다. 이렇게 동전 교환 미션은 실패하고 가져갔던 동전 꾸러미는 계속 거실 탁자 위에 방치돼 있었다.

동전을 조금이라도 없애보겠다고 집 앞 도넛 가게에서 가끔 베이글을 사 먹을 때면 500원 동전으로 냈는데 찰나의 침묵이 흐르고 친절하던 사장님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다. 동전으로 물건을 사는 행위가 언제 이렇게 가게 주인에게는 불쾌함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혐오와 모욕받을 일이 되었을까?

중학생 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학교 매점이나 교내 자판기로 뛰어가 우유, 코코아, 울무차를 커서는 커피까지 몇백 원 하는 자판기 음료를 빼먹는 낙으로 살았다. 또 오락실 등에서도 동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런 동전 넣는 자판기가 안 보인 지 꽤 되었다. 누구는 봉지 커피믹스가 등장한 것이 자판기 감소의 원인이라고도 한다. 회사 휴게실에도 커피머신이 비치된 곳이 많고 식당 입구마다 있던 소형 커피 자판기도 스리슬쩍 자취를 감췄다. 그 많은 동전으로 빼먹던 자판기는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

현금 구경하기가 어렵고 카드 결제를 넘어 휴대폰으로 각종 결제가 가능한 시대라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은 그 돈을 현금으로 한정 지으면 옛말이 되었다. 돈이 도는 것을 ‘돈의 여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만큼 잘 사용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환가치를 갖는 지폐와 달리 교환을 거부당해 화폐가치를 상실한 동전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버스 토큰, 승차권, 카세트테이프, 필름카메라 등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것들처럼 얼마 후면 동전도 사라지고 “나 때는 말이야~”라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Letter 06

밀당 육백

김상영 | 경북 의성군

꼭 두새벽부터 안마기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찌뿌둥함을 참다못한 아내가 안마의자에 올라앉은 게다. 저런다고 빠르 한 삭신을 다독일 수 있다. 새벽잠을 설칠지언정 소방수가 나설 차례이다. 제아무리 신식 안마기라 해도 내 손만 하라. 수건 한 장 들고 아내 귀에 속삭인다.

“고마 방으로 들오소!”

아내는 발바닥이 유난히 아픈 사람이다. 발바닥은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는데 내장이 부실한 게다. 발바닥이 무지근하니 맨발 걷기를 꺼린다. 실내에서도 지압 신발을 신지 않곤 못 배긴다. 아내는 없애선 못 사는 지압 신발을 하루는 현관, 어느 땐 안방, 대중없이 널브러 트린다. 꿰신었다가 아무 곳이나 벗어 놓고는 찾느라 두리번거리기 일쑤다. 집안으로 들어설 때 첫 동작이 신발 꿰신기라 선뜻 눈에 띄지

않는 날은 불안해 보인다.

나한테 그 신발이 지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230mm 그 둥글둥글한 분홍색 오철 신발에 걸려 거실 바닥에 파닥 자빠졌을 땐 천장이 뱅뱅 돌았다. 베란다 쪽으로 넘어져 큰 유리창을 통째로 갈아 낀 적도 있었다. 뒹옥이 절로 튀어나왔어도 슬기운이 좀 있는 데다 덤벙댄 내 탓이려니 하고 아내 입장을 헤아렸다.

셋방살이 신희 시절, 돈이 없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후 유증인 것만 같아서다. 내가 조심할 수밖에. 야밤에 냉장고를 열거나 TV를 보려고 거실을 더듬거릴 때면 신발에 걸려 넘어질까 똥고기가 찌릿찌릿하다. 그래도 발을 질질 끌다시피 걸으면 그뿐이지 싶었다.

그러다 며칠 전 일이다. 거실 바닥에 숯검정 같은 줄무늬가 군데군데 그였다. 걸레로 훑치거나 세척용제로 닦아내도 자꾸 생겼다. 희한하다 싶으면서도 지우기를 계속하였다. 지울 때마다 칠칠치 않은 여자라며 구시렁거렸고 아내는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뒤집힌 지압 신발을 보고서야 알았다. 발뒤꿈치 걸 밑창이 뼈딱하게 닳자 속에 있는 검정 고무가 모습을 드러내 자국을 남긴 거였다. 우직하게 오래 신은 탓이었다. 그날 바로 인터넷으로 새 신발을 주문하였다. 아내는 배송되는 며칠을 못 견뎌서 마스킹 테이프로 신발 바닥을 때워 신었다. 이렇듯 아내의 신발 사랑은 유별나다.

아내는 못 이긴 척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에 눕죽 엎드린다. 아내의 발이 하늘을 향하면 나는 아내 발치계에 거꾸로 앉아 크림 뚜껑을 연다. 허벅지 위에 수건을 펼치고 아내 발을 척 끌어당겨 올린다. 중국 여인네 전족 발처럼 양증맞다. 마사지 크림을 콩알만큼 손가락으로 찍어 다섯 발가락에 피아노 치듯 바른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마다 끼었다 뺐다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조물조물 문지르는 게 첫



순서다. 어느 정도 시동이 걸렸다 싶으면 크림을 듬뿍 찍어 발바닥에 골고루 펴쳐 바른 뒤 주먹으로 죽죽 밀기 시작한다. 빨래판 내리밀 듯 말이다. 때론 느리게 아니면 빠르게 그야말로 리드미컬하게 ‘슬로우 슬로우 퀴 퀴’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압봉이 싸고 썼지만 죽으나 사나 주먹이다. 지압봉은 비인간적이며 무지막지하다. 나는 오장과 육부의 복잡한 압점을 잘 모르니 무작위로 눌러 훑는다. 한 주먹으로 수십 회를 거듭 밀면 마찰 때문에 뼈마디가 화끈거린다. 간간이 크림을 발라가며 하는데도 뻑뻑해지기 일쑤다. 이 주먹 저 주먹 번갈아 대면 열이 수그러지

고 힘도 덜 든다. 150번을 밀고 잠시 발가락을 주무르고 다시 150번을 거듭한다. 한 발바닥에 300번씩 모두 600회에 이른다. 나만의 풀코스라고 할까. 이쯤이면 땀이 진득한 나와는 달리 아내는 코를 얇게 골다가 말다가 한다.

깎았던 수건으로 곤죽이 된 발바닥을 닦는데 세계 문지르듯 하는 행위 또한 시원하리라 여겨져서다. 마지막으로 “갑종” 하며 발바닥을 철썩 치는 것으로 마사지를 마친다. 길면 30분이요, 허벌나게 밀면 20분에도 종 칠 수 있다. ‘밀당 육백’은 내가 붙여본 이름인데 술한 경험 끝에 획정한 공식이다. 속도를 조절하는 건 순전히 내 마음이지만 미는 횟수는 줄이지 않는다. 부부 사이 신뢰의 영역을 지키고 싶어서다. 잡생각으로 횟수를 까먹을 땐 까짓것 처음부터 다시 센다.

누르는 강도가 약하거나 빨리 끝낼 때도 있다. 나도 사람인데 매번 기계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나. 행여 횟수가 모자란다 싶으면 비몽사몽이던 아내는 부실함을 알아채곤 “와 이카노” 한다. 예리하기도 하지. 지압봉에 찢리듯 뜨끔하다.

봉사 받는 처지임에도 당당하니 좋다. 마사지로 상쇄하는 부문이 여럿인데 아내는 고마움의 표시로 삼시 세끼 밥 챙겨주는 데다 반주한잔하시라 고기 구워 대령한다. 글 모임을 거듭하며 고상한 척해도 짐짓 “아이고 대감님” 하며 치켜세워 준다. 그중에 으뜸은 다소 부실한 사내임에도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거다. 화력이 시원찮다며 바짝 달려들면 진땀 나지 않겠는가. 각방살이가 편하다며 황혼 타령을 일삼는 지인들이 남의 일 같지 않건만 아직은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싶다.

사흘돌이 소방수 노릇을 멈출 수 없으니 버겁긴 하나 벗어날 생각은 없다. 문지방을 넘을 힘이 남아있는 날까지 발바닥 밀당을 거듭하겠다.

Letter 07

나의 독립은 진행 중

김진경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이맘때 사춘기가 막 시작된 딸과 함께 제 정신적 독립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결혼 전 내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결혼 후엔 아이 낳고 키우느라 저만의 정신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초 큰딸의 사춘기가 너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뭘 하든 엄마가 세상 최고였던 딸이 제 품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대견함과 함께 서운함, 불안함이 더 컸던 거 같아요.

왜 가족과 함께하지 않느냐 아이를 채근했고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저와 수다를 떨던 딸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꼭 닫으니 허전함이 극대화되었더랬죠.

딸아이와 갈등이 생겼고 몇 달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건 딸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딸은 건강하게 자신의 독립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독립을 못하고 딸을 내 품에 잡아두려고 하는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냈고 많은 분이 운동을 추천해 주셨어요.

평생 태어나 제 돈 주고 운동을 다녀본 적이 없던 제가 그렇게 덜컥 집 앞에 새로 생긴 운동하는 곳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4개월을 등록하면서 사실 등록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웬히 돈 버리는 거 아닐까?’ 등등을 따지다 보면 결국 등록조차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저 그때는 딸아이와 한 공간에서 날 세우고 있는 것보다 퇴근 후 내 스트레스라도 풀고 집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운동.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거였는데 첫날은 정말 1/3도 제대로 뛰지 못했어요. 숨도 쉬기 힘들었죠. 그러나 약삭같이 수업을 다 들어야 한다는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주 2주 3주가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수업의 반 정도는 따라서 땀 정도로 체력이 오르더라고요. 숨차서 헉헉대던 제가 어느 정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되니 1시간 뛰는 걸 거의 다 따라갈 정도가 됐고 함께 뛰는 동료도 생겼어요. 같이 ‘힘내자’ 응원도 하고 운동하러 가기 싫을 때 단톡방에서 ‘운동 갑시다!’ 하면서 재촉도 해주고. 그렇게 4개월을 딱 채우고 나니 체력에 자신감이 생겨서 헬스로 운동을 옮겼습니다.

여기서는 딱 6개월만 해보자! 다이어트보다 근력도 만들고 운동을 습관이 되게 몸에 붙여 보자!라는 목표로 조금씩 욕심을 부리게

됐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최대한 스트레스 적게 받고 습관화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1년, 아직도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꾸준한 1년의 운동으로 변한 게 참 많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큰 딸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딸아이에게 과몰입되어 있던 신경을 많이 거둬낼 수 있었고 아이에게 다가가기보다 곁에서 기다려주니까 아이가 스스로 많이 컨트롤 하면서 저에게 다시 다가와 주더라고요. 자기에게 혼자일 시간과 생각할 시간을 줘서 고맙다고도 하고요.

지금은 매일 저녁 다시 또 딸의 수다로 귀가 시끄러울 정도이고 가끔 단둘이 팔짱 끼고 동네 산책도 다닙니다.

그리고 제 체력의 변화가 엄청나게 큼니다. 항상 퇴근할 때 온 기운을 다 써서 현관문 열고 겨우 집에 들어왔고 지저분한 집을 보며 애들한테 짜증부터 내던 체력 방전 상태였던 제가 지금은 퇴근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애들 저녁 챙겨주고 바로 운동복 입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이 루틴이 힘들거나 지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습관이 됐어요. 체력이 올라가니 제 마음도 많이 여유로워 지더라고요. 주변 스트레스에도 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변화로 인해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 누워만 있기보다 함께 뒷산이라도 오르고 운동을 다닙니다. 딸들과 함께 운동하다 보니 대화도 늘고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식습관도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고 있어요. 온 가족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제계 동네 친한 언니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맏딸이라 항상 누군가를 챙기기만 했던 제가 함께 운동하는 크루에서는 막내거든요. 힘들어도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면서 언니들은 “막내야~ 힘들 때는 도와 달라고 해도 되는 거야!” “지금이 켈 힘들 때야. 근데 너 잘하고 있어~” 자주 말해주고 응원해 줍니다.

제가 야근할 땐 현관문 앞에 쓱 반찬을 놔주고 가면서 카톡으로 ‘애들 저녁 그걸로 해결하라’고 하고 ‘넌 맘 편하게 일해’라고 보내주는 너무나 고마운 언니들~. 가끔 힘들고 지칠 때면 목소리만으로도 제 기분을 귀신같이 알고 “막내! 우리 집으로 와!”하고는 맛있는 안주 계속 만들어 내주면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이 고마운 언니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운동을 쭉 이어올 수 있었어요.

1년 전 저처럼 혹시나 지금 사춘기 아이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다면 혼자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날씨 좋은 때 동네라도 걸어보세요. 바깥바람 쐬고 걷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체력도 좋아 집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에게 집중되었던 내 신경도 나 스스로를 돌보는 일로 조금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날 돌보면서 여유가 생기면 생활이 즐거워지고 엄마가 즐겁고 행복해지면 가족들도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좀 더 좋게 건강하게 온전한 정신적 독립을 위해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etter 08

사감 선생과 아이들

양학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아 아~ 모두 편히 잘 잤습니까? 아침 점호 시간에 늦지 않도록 모두 기상하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매일 아침 기상 음악 방송이 끝나고 15분 후 마이크에 대고 하는 안내 방송 멘트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중학교에서 기숙사 사감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2년 전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여행과 등산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지던 차, 우연히 중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공고를 접하고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시골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남녀 중학교를 통합하면서 기숙사를 지었다 하더군요. 시골은 대중교통 배차 시간이 드문드문하고 보호자들도 농업이나 회사 생활로 자녀들 등하교를 챙겨주기 힘들다 보니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합격 후 제겐 열흘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의 학생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요즘은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도 심심찮게 뉴스로 접한 터라 과연 내가 그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도 됐지만 제가 전 직장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청소년 수용자들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더 크게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관리했던 청소년 수용자 중에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학교와 가정의 냉랭한 눈치 속에서 학교 밖으로 걸돌다 처지가 비슷한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질렀던 아이들도 많았고 그 반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로 지내면서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을 견디지 못해 학교 밖으로 걸돌다 빈집 방화나 유해 화학물질 흡입 등으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고 상담했던 경험과 중독심리사, 범죄심리사, 생애위기 상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이론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다고 다짐하며 드디어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듯 그동안 집에서 부모의 감시하에 있다가 기숙사에서 해방감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또래들끼리 생활하는 기숙사는 또 다른 세상이니 돌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제 눈을 피해 엉뚱한 짓을 하려는 학생들도 많았지요. 그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 꿈도 꾸지 마라’ 눈빛으로 제압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벌점 부과를 하는 건 쉽지만 그전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늘 아이들의 동태를 잘 관찰합니다. 또 통제와 잔소리가 너무 심하면 아이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원만한 소통과 친밀감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숙사 생활 수칙 중 제일 벌점이 작은 침구 정리 불량, 거실 정리 불량 같은 건 아이들이 바쁘면 깜빡하고 빠트리기 쉬우니 내가 좀 도와주자 생각했습니다.

작은 벌점도 누적되면 사안에 따라 짧게는 2일, 길게는 영구 퇴사도 될 수 있으니 내가 정리를 도와주면 아이들은 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게 되어 내가 아이들에게 놓치는 부분을 스스로 잘 챙겨주는 등의 친밀감이 생기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처음엔 정리에 미흡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서 주변 정리를 잘해 나가고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엄한 기준도 잘 받아들여 줍니다.

어느 날은 침울해 보이는 학생을 발견해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으니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오는 지루함이 힘들다 하더군요. 이런저런 가벼운 말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아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아이의 심적 고통을 충분히 들어주니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복도를 지나는데 어디서 라면 냄새가 솔솔 풍겨오더군요. ‘이놈들 봐라? 기숙사에선 컵라면 취식 금지인데 내 눈을 피해 먹고 있나니?’ 문틈으로 냄새가 풍기는 방을 찾아 푹푹 노크를 하니 우당탕 소리가 들리고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 냄새 좋다~” 하며 방에 들어서니 두 명의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있는데 컵라면은 보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작은 방에서 숨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냄새는 진동하고 또 입 주변에 묻는 라면 먹은 흔적은 또 어땡고요. 고개 숙여 침대 밑을 보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컵라면 하나, 침대 모퉁이 책가방 뒤에도 살짝 국물만 남은 컵라면이 숨어 있더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먹을 때 이미 벌점 부과는 각오했을 것이니 벌점 부과는 그대로 가고 남은 음식물은 취사장 잔반통에 버려야 하니까 컵라면 들고 따라와라.”

그렇게 내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옛날 나의 중학생 시절이 생각나서 웃음도 나오고 한창 클 때이니 얼마나 배고플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겹쳐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혹 주머니 송곳처럼 일탈 행동이 우려되는 학생에게는 교도소에서 만났던 문제 청소년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시를 들어 조곤조곤 설명해주면 귀를 쫑긋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읍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조금씩 언행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됩니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상 받았습니니다. 칭찬해 주세요~”라면서 제 얼굴 앞으로 머리를 쭉 내미는 아이를 쓰담쓰담 칭찬해주기도 하고 풋살 경기하다 다쳤다고 상처를 보여주는 아이 다리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독해주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기듯 다소곳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니 얼굴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어른으로서 먼저 걸어 왔던 길이기에 아이들이 살얼음판을 건널 땐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 주기도 하고 넘어진 아이에겐 손 내밀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 보람도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사감 2년 차인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학생 한 명 한 명 성심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Letter 09

보라색 바늘꽃 무늬 이불

사정수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길

‘다’ 숨이 이불 가게”라고 쓴 간판 앞에 섰다. 평소에는 시장을 오고 가며 관심 없이 지나쳤던 우리 동네 이불 가게다. 출입문 밖으로 진열된 좌판 위로는 여러 종류의 베개와 침대 커버가 수북하다. 집에서 나올 때 마음은 이불을 사려고 왔다. 막상 사려고 하니 쓰던 것도 정리 할 참인데 며칠 쓰자고 새로 사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았다. ‘예구~ 이부자리아 깨끗하면 되는 건데 뭘 사’ 그런 생각에 이내 돌아섰다. 그리고 시장 한 바퀴를 돌았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했다. 내 식구야 괜찮지만 한국에 처음 오는 손님이다. 다시 이불 가게로 가서 문을 열었다.

지나다니며 본 것과는 다르게 가게 안은 넓고 물건이 많았다. 15평쯤 되는 곳에는 각종 침구류가 꽉 차 있었다. 오십 중반 나이에 키가 작은 여자 주인이 웃으며 다가섰다. 때는 2024년 3월 29일, 나의 출판

기념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오후였다.

“엄마, 이번에 우리 네 식구 외에 손님 한 사람 더 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누군데?”

“엄마 큰 손자 화비 여자친구요.”

“아니, 그 애는 왜 오는 거야?”

가족끼리 모이는 행사에 낯선 사람이 참석한다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았다.

“화비가 조심스럽게 물어 와서 생각한 끝에 저도 허락했어요. 죄송하지만 화비와 여자친구가 묵을 수 있게 엄마 집 작은 방 좀 정리해주세요.”

“뭐?”

나는 황당하여 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어 한동안 멍했다. 23살 손자는 대학을 마치고 스위스에서 일하고 있다. 여자친구는 대학교 2학년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내 의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밖에서야 뭐 짓을 하든 나한테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건 아닌데? 싶어 입을 다물었다. 내가 잠시 말이 없자 딸이 듣고 있느냐며 한마디를 더 한다.

“엄마, 독일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 엄마가 여자친구를 손자에게서 떼어놓으면 손자한테 미움받아요.”

‘아니 이걸 무슨 소린가? 둘을 따로 재우면 손자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머니가 손자 신혼 방을 만들어 주라는 말처럼 들렸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나 싶었지만 내 책을 출판해 준다고 신경을 썼던 딸이다. 게다가 내 출판기념일에 멀리 독일에서 온 가족이 시간을 내서



오는 것이니 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다. 게다가 우리 큰 손주 화비라면 꺾벽 넘어가던 내가 아니었던가?

화비는 할미가 있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와서 내 집에서 6개월을 살며 정을 한껏 내어주던 손자다. 게다가 이 늙은 할미를 데리고 2주간 베트남 배낭여행도 해주었다.

결국 나는 울며 거자 먹는 식으로 독일 문화를 따르기로 했다. 우리 집은 방이 세 개다. 그동안은 독일 딸 식구들이 와도 침구와 잠자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방 하나는 딸 내외가 쓰고 내 방에서는 나 혼자, 손자 둘은 거실과 작은 방에서 잤다.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온다니 걱정이 앞섰다. 그것도 손주의 여자친구가 온다니 잠이야 어떻게라도 자게 되겠지만 이부자리가 문제였다. 장롱문을 열었다. 노란 꽃무늬가 선명한 오리털 이불을 제외하고는 모

두 눈에 거슬렸다. 깨끗하게 빨아 넣었어도 왠지 후줄근하게 보였다. 그렇다고 봄인데 손님에게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자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부자리를 다 꺼내 방바닥에 놓았다. 봄에 덮을 만한 도톰한 꽃무늬 분홍색 이불은 빛을 잃어 허영계 바래 불그스름하다. 자주색과 노란색이 섞인 체크무늬 이불도 색이 바래 내 성에 차지 않았다. 그동안 사위가 몇 번을 다녀갔어도 이부자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내가 손자 여자친구가 온다는 소리에는 민감했다.

‘다솜이 이불 가게’에서 내 앞에 수북한 이부자리를 보며 이불 한 채와 베개 두 개는 사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르신 뭐 찾으시는 것 있나요?”

“봄에 덮을 이불 구경 좀 하려고요.”

“혼수? 아니면 어르신이 쓰실 건가요?”

나는 멍칫거리며 손님이 사용할 이불이라고 했다. 주인은 이것저것을 꺼내 펼쳐 보이며 크기를 물어본다. 두 사람이 같이 덮을 이불이라며 얼버무렸다. 침구류는 색상과 섬유질이 달랐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그중에서 흰색 바탕에 보라색 바늘꽃 무늬가 드문드문 있는 이불이 마음에 들었다. 깔끔하고 손에 느껴지는 감이 마치 양털을 만지는 것 같이 부드럽고 포근했다.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10만 원보다 배나 비쌌다. 베개도 하나에 4만 원이다. 조금 저렴한 것을 사려고 했으나 색상과 천의 질감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왕에 사는 것 비싸도 마음에 드는 이불과 베개를 택했다. 모두 28만 원이다. 주인이 건네준 이불은 새털같이 가벼웠다. 나는 베개와 이불을 양손에 들고 가게 문을 나섰다.

내 가게부에서 거금이 지출되었다. 손자가 무섭기는 무서운가 보다. 녀석이 내 지갑을 열게 했으니 말이다.

Letter 10

용자 씨 이야기

나형주 | 전남 나주시 우정로

은 해가 청룡의 해라는데 나는 오늘 용의 아들, 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용자는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이니 이제부터 용자 씨라고 불러 보겠다. 이름이 용자이다 보니 당연히 용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다. ‘용자 씨’ 평생 몇 번이나 들었을까? 용자라는 호칭을.

그런 용자 씨를 다르게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다. 용자 씨를 ‘여보’라고 부르는 남편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호흡기가 안 좋아 더운 여름만 되면 잠깐만 움직여도 제대로 숨을 고르지 못하고 거칠게 헉헉대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었다. 대가족의 장손이어서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보다 뒤에서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보다도 용자 씨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다.

용자 씨의 남편 덕에 용자 씨는 대가족의 만머느리가 되었다. 대가

족의 집안 살림을 챙기며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들을 뒷바라지했고, 매 끼니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자신보다 시댁 가족들을 먼저 챙기며 돌봤다.

시간이 지나니 용자 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생겼다. 남편을 꼭 닮은 아들과 예쁜 딸이 하나씩 태어났다.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두 아이는 구김 없이 예쁘게 자라 줬다. 용자 씨의 남편은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먼저 가도 아이들 잘 키워줘~”라며 용자 씨를 속상하게 했고, 몇 년 전 폐암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다행히 잘 완치되어 아이들이 다 성장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용자 씨는 ‘사장님’일 때도 있었다. 손재주가 좋았던 용자 씨는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것이 없었다. 뚝 부러지는 살림꾼 용자 씨는 말머느리 역할로도 바빴지만 틈틈이 커튼과 이불을 직접 만들었다. 용자 씨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작은 가게를 직접 운영하며 사장님이 되었다. 낡은 재봉틀로 용자 씨가 만드는 침구류는 저렴한 가격에도 좋은 원단을 써서 한 번 써 본 사람은 반드시 또 용자 씨를 찾아오곤 했다.

용자 씨에게는 ‘데레사’라는 예쁜 이름도 있다.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며 데레사라는 세례명을 얻었고 성당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 교우분들은 용자 씨를 데레사라는 예쁜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다. 데레사는 크고 작은 성당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기녀이다. 주말이면 더욱 바빠지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 용자 씨의 아들딸이 결혼을 해서 용자 씨는 이제 ‘할머니’라고도 불린다. 할머니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용자 씨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이 늙었다는 소리 같이 들려 싫다고도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용자 씨가 할머니라고 불릴 때 표정을 보니 용자 씨는 할머니라고 불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갓 태어나 손발을 꼬물거릴 때 안아주던 첫 손주가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네 명이 나 되는 손자·손녀들이 크면 클수록 용자 씨도 늙어가는 것이 맞는데 손주들이 커 가는 것이 용자 씨는 너무나 흐뭇하다.

그리고 이런 용자 씨를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지구에서 단 한 명뿐인 남자다. 장모님은 내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 아니 사귀기 전부터 나를 사윗감으로 점찍어 두었다고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내를 오래 전부터 좋아했던 내가 일찌감치 장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 행동했었다고 하는 게 맞겠다. 결혼할 사람의 미래 모습을 보려면 그 어머니를 보라고 했던가? 나는 예전부터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내 아내의 미래 모습도 이러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내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체였고 만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은 유효하다.

오늘 3월 12일은 아내, 맘며느리, 엄마, 사장님, 데레사,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장모님인 남용자 여사님의 70번째 생신이다. 직장 때문에 처가인 인천에서 4시간 떨어진 나주에서 살고 있어 평일인 오늘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못내 죄송하지만, 장모님은 언제나처럼 “자네 힘든데 뭐 하러 올라와~ 이렇게 전화만 해줘도 되네~” 그러실 것 같다.

남용자 여사님, 언제나 못난 사위 예뻐해 주시고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께 더 잘하는 사위 되겠습니다. 생신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모님.

- 장모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위, 나 서방 올림

Letter 11

세대 분리

김재두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아들 하나 딸 하나, 결혼한 지 28년! 인천에 살고 있다. 아들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모두 집을 나갔다. 아들은 27세, 딸은 26세. 연년생이다. 아들은 4년 전에 평택으로 취업해서 집을 나갔고 딸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강남이라 서울로 집을 나갔다.

처음에는 둘 다 너무 좋아했다. 엄마 아빠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산다는 게 너무나 좋았나 보다. 방을 보러 다닐 때 신나 보였다.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보니 전세방은 얻어줄 수가 없었다. 둘 다 월세를 얻었다. 월세 부담이 크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둘 다 원룸에 살아야 했고 보증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대주기로 했다. 나중에 돈 별면 꼭 갚으라고 했다.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교통비와 식생활비는 모두 각자의 월급으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맘은 아팠지만 냉정하게 했다.

둘 다 월 생활비는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다. 둘 다 그만큼 넉넉한 월급은 아니었다. 급전이 필요하면 조금은 도와 줄 수 있지만 되도록 각자 해결하고 살라고 했다.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은 조금이라도 모으라고 했다. 아파트 청약을 해도 계약금이 필요 하니 열심히 모으라고 했다. 청약통장은 아들과 딸 앞으로 9년 전에 들어 놓은 게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세대 분리를 했다. 이것이 제일 중요했다. 주소도 옮기고 방 계약도 아들과 딸 이름으로 했다. 경제적으로도 주거 분리가 되고 서류상으로도 세대주가 되고 나니 느낌이 확 달라졌다. 이제 아들딸은 홀로 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니 우리 부부만 남았다. 웬하니 썰렁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 각자의 등본으로 살아간다. 다시는 합치지 않기로 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진 다 홀로 등본이다.

집 나간 지 4년 되는 아들 방은 옷 방 겸 컴퓨터 방으로 바꾸고 올해 집 나간 딸 방은 빨래를 해서 넣어놓았다. 미술을 전공해서 딸의 방엔 딸이 그려놓은 그림이 가득하다. 둘 다 잠자는 방으로는 쓸 수가 없다. 자식들이 나가면 공간이 빌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씨늘하고 그리웠다.

가끔 주말에 집에 오면 딸은 안방에서 엄마랑 같이 자고 아들은 거실에서 아빠랑 같이 잔다. 그래도 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많아졌다.

아들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11시가 넘는다고 한다. 이제 갓 집을 나간 딸은 처음 한두 달은 좋다더니 이제는 늦은 밤 집에 오면 썰렁한 빈 공간이 허전하고 외롭다고 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늦은 밤이면 딸은 가족 특방에 문자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자주 한다.

그러나 집 나간 지 4년이 다 된 아들은 다르다.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한가보다. 조용하다. 아들도 처음엔 집 나가고 딸과 같은 증상이 비슷했다. 아빠에게 술하게 전화를 많이 했었다. 그러나 이젠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전화를 한다. 엄마 아빠가 전화를 하면 통화가 잘 안 된다. 이제 진짜 독립을 하나 보다. 가족톡방에서 아예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그래도 문자나 사진 등은 다 보고 있다고 한다.

4년 전 아들을 내보내면서 주소를 세대 분리해서 옮겨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빠 명의로 계약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 당시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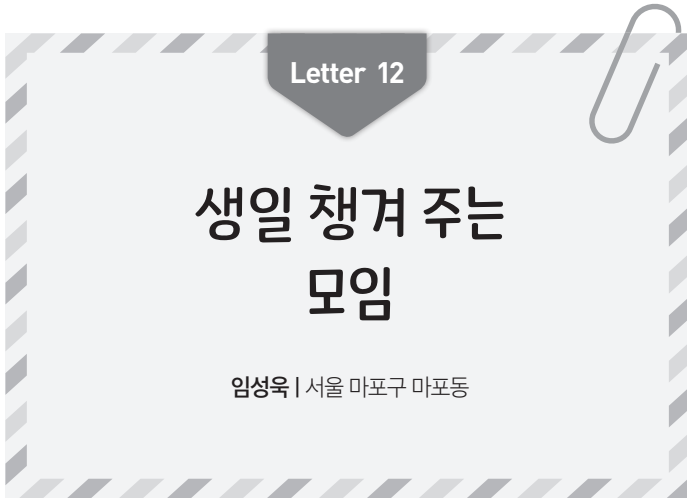
“아빠! 아빠 이름으로 계약해. 내가 회사 생활이 힘들면 집으로 도로 와야지. 어떻게 거기서 살아!”

그래서 2020년 5월, 아빠 이름으로 월세방 계약을 했다. 아들은 충실히 회사에 다니며 돈도 아껴 쓰고 열심히 모았다. “아들, 평택에 아파트 청약 나오면 신청해서 집 사라!” 말하고 아들에게 취업한 회사에 오래 다니라고 평택에서 정착해서 살라고 말했다. 결혼하려면 아파트가 꼭 있어야 하니 세대 분리도 하라고 했다. 그렇게 20년 10월에 아들은 주소를 평택으로 옮기고 세대 분리를 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딸은 엄마 아빠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나 보다. 용돈 지원을 자주 요청한다. 독립엔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딸은 아들과 달리 월급에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돈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것도 빚으로 다 정리해 둔다. 언젠가 모두 보여주기 위한 소중한 생활 자료다. 독립하고도 자식들의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계부는 아빠인 내가 전부 쓰고 있다. 15년째 쓰고 있다. 아 이들이 학교 다닐 땐 들어간 교육비가 얼마인지 모두 다 가계부에 기록해 두었다. 먼 훗날 자식들이 결혼해서 생활할 때 이 자료를 다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가족사 기록이다.

나도 이십 대에 홀로 독립했다. 이십 대 자녀들을 알아서 살라고 독립시켜 내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일찍 독립해서 산다는 건 자식들의 인생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는다. 경제적, 생활적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생기더라도 인생 경험을 일찍이 해본다는 건 4-50대를 살아가는 데 든든한 원동력이 될 것이기에 아픈 부모 마음은 여기에 이렇게 적어 둔다. 대신 이렇게 전해본다.

이번 주말에 집밥 먹자. 힘내, 아들딸 파이팅! 사랑한다.



지 난달 기업은행에서 운 좋게 여성시대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사연들을 읽다 보니 늘 라디오로 듣기만 하던 여성시대에 나도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한 번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노크를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1966년생 말띠로 경북 봉화군 상운면에서 함께 학교에 다녔습니다. 모임 이름은 '청담회(淸談)'라고 지었지요. 뒷담화를 하지 않고 친구들끼리 좋은 이야기만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현재 33명의 회원이 전국에 나누어서 살고 있어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톡방에서 나가면 이유를 막론하고 탈퇴 처리를 하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총무는 33명의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계산해서 오전 9시! 땡 하면 “오늘은 누구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고 공지를 해줘요. 회원이 33명이다 보니 평균 열흘에 한 번꼴로 생일이 돌아오고 한 달에 약 3명 정도의 생일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머지 30여 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축하를 해줘요. 사실 이 정도의 축하는 다른 톡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 그리 특별한 축하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청담회’만의 진짜 특별한 생일 축하 잔치는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생일 다음 날! 생일이었던 친구가 축하해준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거든요. 어떻게 쏘냐고요? 요즘 톡방에는 ‘랜덤 선물하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작년까지는 무작위로 2명씩 주던 걸 올해부터는 3명씩 하기로 했고 선물은 작년까지는 호두과자였는데 올해부터는 약과로 변경이 됐어요. 만약에 선물 당첨이 되었는데 전날 깜박하고 축하를 안 했다면 선물 당첨은 무효 처리가 되고 다시 추첨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깜박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생일을 저희는 이렇게 톡방에서 일 년 내내 정말 잔치처럼 치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선물에 당첨되는 확률입니다. 33명이 있는 방에서 한 달에 3명꼴로 생일자가 나오고 생일인 친구는 총 3명의 친구에게 답례 선물을 보내니까 당첨 확률을 계산하면 10명 중 1명꼴로 약 10퍼센트 정도가 되지요. 톡방 프로그램이 무작위로 선물을 뿌리는 거니까 다들 비슷한 확률로 선물을 받게 될 거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평균 성적이 사람마다 다 달랐던 것처럼 어떤 친구는 1년에 8번까지도 당첨이 되는



가 하면 어떤 친구는 단 한 번도 안 되거나 한 번 될까 말까 그래요.

저는 이 현상을 불교 용어로 '인과응보'라 설명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베푼 대로 간다고 했던가요? 대부분 친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애들이 선물 당첨도 잘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다들 동의하는지 당첨이 자주 되는 친구가 또 당첨된 날이면 '나도 덕을 좀 더 많이 쌓아서 다음에는 당첨돼 봐야지' 하는 농담 섞인 글들이 특방에 올라옵니다.

이제 곧 또 제 생일이 다가오네요. 이번엔 또 누가 당첨될까? 벌써 궁금해집니다.

다른 당당이 분들도 친구들 모임에서 저희처럼 이런 이벤트를 해본다면 회원들 간에 한층 더 두터운 친목이 다져지지 않을까 추천해 드립니다.

Letter 13

호박당구장 영웅들 2

정한성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저는 지난 1월 3일에 목포에 있는 호박당구장의 영웅들 사연을 전했다던 사람입니다. 그리 웃긴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김일중님이 웃음보가 터졌다면서 엄청 재미있게 사연을 소개해 주셨고 양희은님이 멋들어진 추임새를 넣어주셔서 신년 초부터 저 역시 무척 많이 웃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호박당구장의 영웅들과 회원들 그리고 지인들도 다들 엄청나게 재밌어하며 즐거워했답니다.

호박당구장의 우병수 사장님은 근처에 있는 식당 등 여러 곳에서 여성시대를 들었다는 인사와 전화를 받았으며 이제 호박당구장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새삼 여성시대의 인기와 위력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날 미처 소개 못한 영웅과 후일담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제가 빠트린 김덕구 아우님은 '감성돔'의 영웅입니다.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 그는 낚시 철이 되면 감성돔을 잡아서 우리 친구들과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호박 팀들이 즐겨 찾는 단골집 중 하나인 '나이스 포차'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심성 착한 아우님 덕분에 우린 쫄깃쫄깃한 감성돔 파티를 하곤 합니다. 참으로 정이 많고 누렁지 송농처럼 구수한 아우님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마디 더! 덕구 아우님! 올해도 감성돔 파티 부탁해요~.

그리고 저는 이 호박당구장에서 맺은 인연으로 얼마 전 주례를 서기도 했습니다. 주례를 부탁한 사람은 바로 '보쌈의 영웅' 의덕이! 의덕이는 당구장 인근에서 '또 보쌈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유일한 취미가 쓰리 쿠션입니다. 점심과 저녁 장사를 바쁘게 하고 잠시 쉬는 시간마다 당구장을 찾는 이 영웅님은 저보다 실력이 서너 수 위인데 항상 웃는 얼굴로 당구를 즐기는 모습이 참으로 착하고 건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보쌈의 영웅이 저를 압도적으로 이긴 후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장 선생님! 쌤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교장 쌤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 영웅은 저의 절친의 딸, 민경이와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항상 활짝 웃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쌈의 영웅'이 내 친구 딸 민경이의 애인이라는 사실!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압도적인 스코어로 저를 이겨 버려서 조금 서운했던 감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치 몇 년 만에 헤어졌던 아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두 사람은 꽤 오랜 동안 사귀다 3월 23일 결혼식을 한다고 했고 저는 주례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결혼식은 주례 없이 재밌게

하는 게 추세라고 거절했지만 신랑인 의덕이와 신부인 민경이 그리고 친구와 친구 부인의 부탁이 있어 주례를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 둘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둘의 모습을 보니 축복의 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암으로 투병하다 이 둘의 결혼식을 못 보고 2주 전에 친구가 떠나버렸으니 더욱 성심을 다해 주례를 보았습니다.

사회는 민경의 친구가 보았는데 저와 환상의 콤비가 되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할 거냐 물었더니 재치 있는 민경이는 남편이 당구를 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겠으며 자기도 당구를 같이 즐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을 인용해 둘이 한마음으로 서로의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라고 서로 존중하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주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기 등을 짚막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제가 주례를 서주었으니 앞으로 당구 칠 때 서너 번 정도 쳐주어 제 체면을 살려주라고 보쌈의 영웅에게 헐박 아닌 헐박도 했습니다.

요즘은 당구장도 전산화되어 승률이나 랭킹 등이 나오는데 저는 호박클럽에서 승률도 최하위, 랭킹도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의덕이가 나트랑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최하위를 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친구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이날 결혼식도 보고 사위와 당구도 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몹시 아파옵니다. 아마 저 하늘에서 두 사람을 보며 활짝 웃고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무척 고무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저와 호박의 영웅 9명이 목포 당구 동호인들이 개최한 당구대회에 출전한 것입니다. 80명이 출전한 대회였는데 제가 출전 선수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호박당구장 '제로클럽'의 초대 회장입니다. 호박당구장이 문을 열고 최초로 '0'점으로 진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그 뒤로 3명의 회원이 더 입회했고 저는 이 명예로운 회장직을 다른 회원에게 이양하려 했지만 다들 '최초'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다며 좀처럼 받으려 하질 않아 아무래도 종신 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우병수 사장님은 대회에서 제가 만약 영점으로 진다면 절대 호박당구장 동호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제 고향인 '진도의 동호인'이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큰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영점은 면해야겠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출전 전 호박 식구들도 잘 치시라고 격려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닉네임이 '차차차'인 아우님은 초구 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고 다른 많은 식구도 최하수인 저와 시합을 해주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승은 아예 엄두도 안 내고 1점이라도 쳐서 영패를 모면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출전했는데 다행히 저는 4점이나 쳐버렸습니다. 목표를 400% 초과 달성해 버린 겁니다. 비록 20대 4라는 엄청난 차이로 지긴 했지만 처음 출전해서 400%를 초과해 버렸으니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호박당구장의 우병수 사장과 동호인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려준 것 같아 무척 다행입니다. 고맙게도 우병수 사장님은 직접 와서 응원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 주고 시합이 끝난 후 뭐 먹고 싶

냐 묻더니 내가 먹고 싶다고 말한 간짜장도 사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정말 맛나게 먹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당구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고마운 우리 우 사장님께 간짜장 곱빼기예다 탕수육, 팔보채까지 곁들여 이 은혜를 갚을까 합니다.

일단은 대회 1승을 목표로 오늘도 내일도 호박당구장을 찾아 가일층 심혈을 쏟아 실력 연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이번 PBA에서 우승한 저의 영웅 조재호 선수에게 한 수 지도를 받고 싶을 정도로 당구에 대한 저의 열망은 불타오르고 있으니 아마 다음 대회에서는 반드시 1승의 신화를 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 국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성시대>의 두 영웅 양희은 영웅님과 김일중 영웅님께서도 저의 1승을 기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신] 아! 그리고 사실 저희 호박당구장을 찾는 모든 회원은 다 영웅입니다. 일일이 소개하려면 3박 4일도 모자랄 것 같아 당구장 닉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소의 뿔, 어차피, 즐겁게, 도림거사, 옥암골, 알렉스, 해달별, 쫓신, 신기루, 이런거, 강남오빠, 해뜨면자자, 오드롱, 메버릭, 차차차, 마인드 컨트롤, 호박소금장, 마징가오빠, 강냉이, 예라이, 무시로, 낭만 너구리. 이외에도 오늘도 호박에서 당구 실력을 연마하고 있는 모든 영웅님께~ 늘 당구의 신이 함께하여 연전연승하시길 기원합니다.

Letter 14

사춘기와 갱년기

애청자

요즘 저는 열여섯 사춘기 둘째와 냉전 중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원을 보냈는데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60점 받아왔고 실망스러운 점수에 제가 화가 나 “공부를 하긴 한 거냐?” 따지니 그걸로 설왕설래 하다가 다툼이 되었죠. 저는 아이를 이해 못 하고 아이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답니다. 마흔 살이 다 되어 힘겹게 얻은 둘째 아이가 사춘기를 이렇게 호되게 치를 줄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전 출근길이었습니다. 바빠 걸어가는 제 앞에 예닐곱 살로 보이는 꼬마가 땅에 떨어진 꽃잎을 줍더니 “엄마, 이거 진달래야 진달래!” 합니다. 옆에 걸어가던 아이 엄마가 “이거 철쭉 아니야? 진달래인 줄 어떻게 알았어?” 하니 아이는 우쭐해서 선생님이 그랬는데 잊어 어떻게 수술이 어떻게 귀엽게 종알댁니다. 그들을 스쳐 지나 버스

에 올랐는데 창밖으로 그 꼬마의 뒷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의 어릴 적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도 저렇게 예쁘고 귀여웠는데 말입니다. 어린이집 걸어서는 그 10분 동안 엉뚱한 말로 종알대며 저를 웃게 한 그때가 효도를 다한 거지 싶습니다. 엄마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눈을 놀란 토끼처럼 크게 뜨고 찾아대더니 지금은 제가 주말에 집을 비우면 환호하네요. 어릴 땐 제 뒤꿈치만 졸졸 따라다니더니 이젠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네요.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좀 나긋해집니다.

가끔은 '엄만 날 왜 이렇게 늦게 낳았나?'고 합니다. 아마 친구들의 활달하고 젊은 엄마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이도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 싶습니다. 엄마가 이젠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고 좋은 곳 데리고 다니며 예쁜 옷, 맛난 음식 사주는 게 일상인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며 불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사춘기 때 느꼈듯이요. 그때 부모님께 그런 마음을 표출한다는 게 어려웠지만 시대가 달라진 지금 아이는 저를 원망하겠단 싶습니다. 조금은 이해도 가구요.

제 고민에 직장동료가 "우리 아들은 44점 맞았다 왜! 너 지금 자랑하냐?" 해서 점심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어준 덕분에 우울감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 건강만 해라 하다가도 시험 성적은 왜 저를 이렇게 치사하게 만드는지요.

어제는 아이가 좋아하는 초코아이스크림을 사와 일부러 식탁으로 불러냈습니다. 제겐 찬 바람이 뽀뽀 불더니 아이스크림은 못 참나 봐요. 몇 손갈 떼었을 때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너 진달래랑 철쭉 구분할 줄 아니?" 아이도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합니다.

"진달래는 키가 크고 철쭉은 땅에 가깝게 자라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저도 진달래와 철쭉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힘들게



시험 보고 온 아이에게 공부 머리가 어찌니 했던 저 자신이 순간 한심
해지더군요.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수학 60점 맞았어도 국어 80점 맞았으니 됐어!”

미안하단 말을 예뉘러 뱉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탁 위에 그림을 곧잘 그리는 아이가 스케치북에 진
달래꽃을 그려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등교한 아이에게서 문자가 멍
뚱 하고 왔습니다.

<엄마! 진달래나 철쭉이나 다 예뻐! 오늘 저녁에 코다리조림 해주
면 안 돼요?>

며칠 동안 아팠던 어깨가 갑자기 가볍게 느껴집니다. 퇴근길에 마
트에서 코다리 사다가 바글바글 조리주었어요. 좋아하는 곱창김에
코다리 살 올려서 밥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첫째랑 학교 얘기로 이
야기꽃을 피웁니다. 언제 또 저랑 한바탕할지는 아무도 모르네요. 우
리 사이는 풍전등화일까요? 사춘기 vs 갱년기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Letter 15

4년 만에 끝낸 된장찌개

이원균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경 기도 버스 회사에서 서울 시내버스로 이직하면서 난 친분이 있던 형들에게 모임을 소개받게 됐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화요일에 장애우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회사에는 여러 모임이 있다. 축구, 야구, 골프, 배드민턴 등. 사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던 난 격한 운동모임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형들은 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같이 해보자 권했다.

4월 9일 화요일 10시. 그동안 봉사라고는 27번의 전혈헌혈과 1번의 성분 헌혈, 매달 소액을 지원하는 기부만 했던 내겐 새로운 시작이고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다. 새벽 두 시에 퇴근해서 집에 온 나는 대충 씻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7시부터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 준비하고 방화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살림의 집'으로 향했다.

주방에선 점심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나까지 다섯 명이 각자 파트를 나누어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메뉴는 과일샐러드, 양념에 쪄낸 돼지고기구이와 된장찌개 백반이었다. 내겐 채소와 과일들을 씻고 써는 기본적인 과제가 내려졌고 이에 나는 맛있는 음식이 될 밑 재료들을 손질했다. 오이는 굵은소금으로 표면을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방울토마토는 씻은 후 식초 몇 방울을 희석한 물에 담가 놓았다.

이를 지켜보던 된장찌개 주방장 형님이 “진짜 요리 좀 하는 거 같은데? 된장찌개 끓일 줄 알아?” 물으셨다. “할 줄 알기는 하는데 4년도 더 넘은 거 같네요~” 망설이는 듯 대답했다.

난 더 이상 된장찌개를 먹지 않는다. 직접 끓여 먹었던 2019년 12월 12일이 마지막이었다. 난 돌아온 싱글이다. 13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했다. 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내와 아들이 제대로 먹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시골에서 가져와 먹던 할머니표 된장을 서로 나누기 위해 두 개의 유리병에 옮겨 담다가 된장찌개를 끓였던 것이다.

내 집 냉장고엔 그때 나누어 가져온 된장이 그대로 있다. 뚜껑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그렇다고 음식으로 만들어 먹지도 못했다.

냉장고 안쪽 끝 한구석에 있는 된장을 보면 꼭 내 처지를 닮은 것 같다. 친구들과 헤어져 수백 리 떨어진 현재 내 집까지 오게 됐고 40여 년을 살았던 동네를 떠나 혼자 살고 있는 내 처지와 다를 바가 있으랴. 그래서인지 된장을 보면 결혼생활에 실패한 미련과 같이 살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몰려와 된장찌개를 요리하지도 먹지도 않게 됐다.

이런 내막을 몰랐던 형님은 내게 된장찌개의 권한을 넘겨주었다.

‘그래 한 번 해보자! 40인분의 찌개라….’

난 머릿속으로 레시피를 그리며 된장찌개로 변신하게 될 재료들을 둘러봤다. 형님들이 장을 봐온 것들은 대충이었다.

명태 머리 10여 개, 무, 다시마, 대파, 양파, 감자, 두부, 표고버섯, 시판용 된장. 사실 된장찌개는 국물용 멸치만 있으면 맛 내기가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준비한 재료들이 너무 고급지다 생각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었을 형님들의 마음을 알기에 재료들을 깨끗이 씻고 커다란 냄비 안에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뽀글뽀글 끓고 있는 물속에 명태 머리, 다시마, 큼지막하게 썬 무와 듬성듬성 썬 대파를 넣고 국물을 우렸다. 다음 속살이 새하얀 햇양파, 연두연두한 겉과는 다르게 속살이 노란 호박, 포슬포슬 입안에서 부서질 감자, 찌개의 온기를 고스란히 입안으로 옮겨줄 두부, 탱글탱글 툭툭 튀는 식감을 뽐낼 표고버섯을 장애우들이 먹기 좋게 작은 크기로 썰어 커다란 스테인리스 볼에 섞이지 않게 구분 지어 옮겼다.

나의 신속하고 절도 있는 칼 사용에 형들은 감탄했다. 내 칼질 끝에 도마와 부딪히는 정갈한 소리는 나를 더 신나게 만들었다.

육수를 우렸던 냄비 속 재료들을 꺼내고 시판 된장을 육수에 풀었다. 오랜만이어서인지 40인분은 처음이어서인지 된장을 푸는 내 손은 밀 재료 손질 때의 신속함은 없어지고 신중해졌다. 한 국자 두 국자 몇 국자를 넣고 맛을 봐도 맹물 같았다. ‘라면 스프라도 넣어야 하나?’ 시판 된장을 써보지를 않아서 맛이 그러지지 않았다. ‘얼마만큼을 넣어야 되는 거야!’ 된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할머니의 것보다 짠 정도가 덜했다. 오히려 단맛이 느껴졌다. 난 과감하게 남은 된장을 모조리 넣었다. ‘짜면 물을 더 붓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딱딱한 감자부터 제일 연한 두부까지 재료들을 냄비에 순서대로

넣었다. 찌개 완성 5분 전 사각사각 식감을 살리려 채 썰어 놓았던 무와 멸치의 향을 훔내 내 줄 멸치액젓을 조금 넣고 불을 끄고 배식하기 전 송송 썰어두었던 대파와 육수에 몸 바쳤던 다시마를 다시 정성껏 씻어 점액질을 벗기고 채 썰어 넣었다. 그렇게 4년여 만에 된장찌개가 내 손에 의해 다시 끓여졌다.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신 장애우들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며 천사 같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내가 해준 것에 비해 얻은 것이 많은 뿌듯한 하루였다.

음식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오늘 내가 끓인 된장찌개에도 내 마음이 담겼다. 결혼생활을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한 아내와 아들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정성을 다해 요리했다. 오늘 그 마음을 펄펄 끓는 찌개에 넣어 녹여 없애 버렸다.

앞으론 내 인생에도 약간의 소금 간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서로 행복해지고 싶어 이혼한 거니 행복을 위해 살 것이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들과도 더 많은 시간 함께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만들고 싶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모자랄 시간에 이미 지나버린 미련과 후회는 그만하고 내가 살아내야 할 오늘과 내일에 소금 간을 쳐 맛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형님들, 다음 달엔 뭐 만들까요?”

별써 다음 달이 기다려진다. 샬롬의 집 봉사단 파이팅!

그래도 냉장고 구석에 있는 된장은 먹지 못할 것 같아 아들과 저녁을 같이한 오늘 엄마한테 된장을 얻어 왔다.

이달의 손편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권현옥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저는 그동안 못했던 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랑은 다 안아도 저희 남편만 안아주는
나라는 마음은 아직도 버릴겁니다.

그날따라 잠이 유난히 못들어와 여친
미쳐떨린 거실 대청소를 좀 하니 시원합니다.
쏟아지는 물감들, 깎, 신발까지 헹 불가사리까지...
그러다가 문득 탁자위에 놓인 GPS로 발견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한참 유행하던 때라 이미 팔로가
없어진 물건인데 이게 배 여기있거 그러면서
산레기통으로 던져놓고 라목보일러에 머지 않아
별났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 개똥하게 자고 일어나서

부산에 사는 시동생집에 간음이 있어 차이를 겪고 있는데 남편이 무언가를 열심히 착근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버기라 됐는데..."

혼자 계속 공부거리며 책도 들춰내고 서랍장도 열어보고 장식장도 다 뒤집어보고...

그래서 뭐 찾냐고 묻으니 한눈 부산 가짜의 무신 하이패스를 챙겨서 일부러 잠내야는 듯이 챙겨 있었는데 근래에 읽는데 하면서 나오고 못봤냐고 하는 겁니다.

아빠사! 어제밤 제눈에 SPS가 바뀐 하이패스였는데 왜 제눈에 그게 하이패스로 안보이고 쓸데없는 물건으로 보였는지...

저는 똑같은 남편의 성격을 만기에 모른다라 딱 잡아떼었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하면 변질가는 다짐에 복근경에 놓는건 변했으니카면.. ㄱㄱ

그러므로 남편은 한창을 더 찾다가 결국 하이패스 새를 하나 구입해서 부산엔 다녀오기 했는데 지금도 안 찾다니 맞다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흥만내면 어디 있거든 있을텐데 라면서 기간이 찾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 앞두네에 아싱가딘 남편이 녀라녀라 보더니 창고에서.. 마당으로.. 또 무뎌 찾는다 불쾌하게 봤다갓다 합니다.

또 무뎌 찾냐고 물으니 등발이 리자가 버기에 날명키 씌어 왔는데 안 왔는지 어긋잖은 옷창고 다 찾아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것이 슬만한것이 있으면 자꾸는 가지고 나서 살아놓는통에 짐창고에 뒤죽켜 낱 지인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재활용선라에 한차 정도 정리해서 가져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남편이 그건 찾다니...

남편은 앞두네 사랑방같은 형님집에 사랑들이

많이 많이 가지 갖다 놓으면 좋을까 같아서
가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 음식점 외자
사뭇하든가 아깝다는 얘기밖에 가져다 놓고
몇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향신이 머린거 아니냐며 연상을
시켰지만 저는 딱 모르는 인이라니 딱 시키기 딱
라곤웃으로 귀해비겼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아는거 모르는거...

시간이 흐르니 세월이 가니까 잊어버릴것지...
이제는 말할수 있습니다.

이십년 가까이 지난 것 여기까지는 말하지만
할수있다면 우리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쓸만하다니 러이상 물건들 좀
챙겨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1736] 어제 초2 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더니 저에게 주더군요. 엄마 주려고 주워 왔다고 하면서요. 꽃도 예쁘고 아이 마음도 예쁘고 제마음이 환해졌네요.



[5696] 퇴비를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은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운반하는 걸 많이 보겠지만 큰 차가 진입이 어려운 곳은 이렇게 수작업을 합니다.



[3941] 옥상 상추들이 춤을 추네요.



[8424] 고추 모종 키우고 있습니다.



[3732] 아들만 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멍게 드리려고 손질하는 아들. 참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여성시대 가족 감정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언니 저녁 드셨어요?

듣지 않고 먹었는데?



서울에 사는 70대 동생과
강원도에 사는 80대 언니는
이렇게 매일을 통화합니다.



놓담하는 걸 보니 오늘도
언니의 컨디션이 좋은 모양입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통화하다 말고 언니가 갑자기

사랑합니다~



응?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에 걱정이 많았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좋대
우리 앞으로 통화 마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자.

그래서 다음날엔 제가 먼저 말을 했지요.

사랑합니다.



에이~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한발 늦었네~



그렇게 저희 자매는

사랑합니다.



동화 끝날 때도 안 됐는데
사랑합니다 하는 게 어딴
이건 반칙이지!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했다. 히히



언니를 이겨먹으니
좋으냐?



누가 먼저 '사랑합니다'를 할까
경쟁인 양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유치하지만 재미나는지요.



며칠 전 연골주사 맞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한적이 있는데
조금 전 택배가 왔네요.

언니가 건강식을 푸짐히 보내주었기에
받자마자 쪼르르 전화를 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
나는 언니 건강식 뺏어 먹는
나쁜 동생이네.

아니지 내가 착한 언니라서
동생이랑 보약 나누어 먹는 거지



언니와 매일 오손도손
주고받는 대화가 제게 보약입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우리 회사 복지의 시작, 맞춤형 간식 관리 서비스

IBK기업은행 창원상남지점 거래고객

(주)삼백육십오 구수룡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이제 회식보다 간식의 시대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회식하는 기업이 줄고 있다. 그 대신 직원들을 위해 휴게실에 간식을 마련해 놓는 기업이 늘고 있다. 소소한 간식은 작은 복지지만 효과는 무척 크다. 스낵365를 운영하는 (주)삼백육십오는 이런 트렌드에 따라 맞춤형 간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에 스낵365의 성장세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삼백육십오는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간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2019년 2.5평의 공유 사무실에서 책상 두 개로 시작한 삼백육십오는 6번의 이사를 거쳐 지금의 사옥을 완공해 이전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간식 전용 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시중가보다 최대 38% 저렴한 가격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간식을 정기적으로 배달하고 관리하는 스낵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 구매 담당자가 필요 없고 예산 절감도 되기 때문에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스낵365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고 간식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스낵365는 기업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배송·설치·관리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스낵류부터 음료, 커피, 간편조리식, 냉장·냉동식품, 과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스낵365의 큰 장점이다. 이런 장점 덕분에 다수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스낵365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스낵365는 기업 대상의 맞춤형 간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사내 행사 및 소중한 날을 위한 케이터링 서비스, 가격에 맞게 매일 간식을 바꿔 고객에게 배송해 주는 1인용 개별 간식 서비스 및 개인의 취향이나 상

황에 맞는 테마 간식 박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커머스와 무인점포 시장까지 진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삼백육십오는 창업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368% 매출 신장을 달성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창업 초기에는 큰 반응이 없었다. 기업의 간식 구매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가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은 비용에 만족도 높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매력을 어필하며 입소문을 타고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지금은 전국 최저가 수준으로 간식을 제공하며 계속해



서 고객사를 늘리고 있다.

“삼백육십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팀원들 덕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세 명의 대표진이 물류, 커머스, 경영 파트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함께 고생한 팀원들이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 상생하는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삼백육십오는 단순히 간식을 배달하는 물류 중심의 회사에서 벗어나 IT를 접목한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미 기존 간식 서비스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원하는 간식을 시간, 공간, 수량, 이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별 맞춤형 설계를 해주고 배송까지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낵 제조사와 직거래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 플랫폼 기반의 간식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창원상남지점 김승준 지점장은 “삼백육십오는 IBK 부산 창공 7기 기업으로 2022년도에 IBK기업은행과 인연을 맺어 투자 유치까지

진행한 스타트업”이라며 “창원상남지점 혁신금융부가 발굴한 무한한 성장에 기대되는 우량 기업”이라고 칭찬했다. 아울러 “영남권에서 작게 시작한 스타트업이지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 글로벌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창원상남지점 김승준 지점장(왼쪽)과 (주)삼백육십오 구수룡 대표

! (주)삼백육십오 구수룡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물류센터의 간식 회전율을 30일 미만으로 맞춰라.
2. AI·빅데이터를 활용하라.
3.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라.
4.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

(주)삼백육십오

대표 구수룡

전화 070-4100-1365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산단동로12번길 13

홈페이지 <http://www.snack365.co.kr>



나눔을 실천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전북 최초의 군산채석단지

IBK기업은행 군산수송지점 거래고객

(주)대운산업개발 함경식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대운산업개발은 전북 최초의 군산채석단지다.

함경식 대표가 일평생 석산 개발에 힘쓰며 일궈온 회사다.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꾸준히 매출 상승을 달성하고 있다. 그는 회사뿐 아니라 직원들과 지역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운산업개발은 지난 25년간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을 통해 좋은 품질의 석재를 공사 현장에 공급해왔다. 1999년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대운산업개발은 2011년 도내 최초로 '군산채석단지' 지정을 받아 석재와 골재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골재 채취를 위한 골재 선별 방법, 골재 선별 장치 제작 방법, 골재 선별 시스템 등 각종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운산업개발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이후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 약 305억 원을 기록했다.

“채석단지 허가 조건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이슈가 점점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군산채석단지 지정은 도내에서는 최초로 전국 채석단지로는 세 번째인데요. 규제가 생기기 이전이었지만 환경을 위해 기계마다 집진장치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라며 함경식 대표는 기업에 대한 자
금심을 표현했다.

대운산업개발은 새만금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군산시와 경계
를 이루고 있는 새만금에는 방대한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
운산업개발은 새만금 사업의 토석
공급을 책임질 유일한 군산채석단지
인 만큼 사업이 본격화되면 큰 수혜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경식 대표는 20여 년간 골재 생
산 전문 업체에 근무하며 경험을 쌓
은 후 창업했다. 창업 후 지금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승승
장구해 왔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불과 창업 3년 만에 거래
처 부도에 따른 연쇄 부도를 맞으면
서 큰 시련을 겪었다. 당시 억울할 수
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숨은 빛까지
다 찾아서 해결해 주어 신뢰와 믿음
을 쌓았다. 거액의 부도를 해결하며
대운산업개발의 평판도 널리 알려졌
고 산림청으로부터 군산채석단지 지
정을 받으면서 회사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직원들 모두 장기 근속자예요. 과
거 연쇄 부도를 맞고 어려웠을 때 1년
동안 급여를 주지 못했는데 함께 일
한 직원도 있어요. 직원들이 없었다
면 지금의 대운산업개발은 없었을 겁



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경식 대표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본봉이 아닌 총급여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지난 2월에는 전 직원 부부 동반으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직원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도 더욱 열심히 일하

고 있다. 특히 위험 요소가 많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는 것은 모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직원들 덕분이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사회공헌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군산교육발전재단 장학금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에 사랑의 연탄을 비롯해 백미 나눔을 실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지속적인 투자와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IBK기업은행 군산수송지점 이정 지점장은 “대운산업개발은 군산수송 지점 최대 거래처”라며 “대표님이 이 루신 성과도 대단하지만 그 이익을 직원들과 지역에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공헌활동을 실

천하고 계시는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을 하고 계시 서 여성시대에 꼭 소개하고 싶었다” 며 “앞으로도 IBK기업은행과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 을 나타냈다.



IBK기업은행 군산수송지점 이정 지점장(왼쪽)과 (주)대운산업개발 함경식 대표

! (주)대운산업개발 함경식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여 신뢰와 믿음을 쌓아라.
2. 직원들과 이익을 나눠라.
3. 사회에 환원하라.

(주)대운산업개발

대 표 함경식
주 소 전북 군산시 나포면 왕골로 293-1

전 화 063-453-8270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시상식



해마다 봄이면 열리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의 글제는 ‘여행’으로 스물한 편의 수상작이 가려졌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여성시대 스튜디오에 모시고 생방송으로

얘기를 나눈 후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여하신 영광의 수상자들을 소개합니다.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아버지의 순례길

이진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내 아버지는 우편배달부로 35년 7개월을 근무하셨다. 요즘 아이들은 집배원이라는 직업도 생소할 테지만 아버지는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집마다 소식을 전하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단 하루의 휴가나 결근 없이 장기 근속하셨고 이것이 큰 자랑이셨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난이 느껴져 가슴이 아리다. 홀어머니와 6형제 그리고 4남매의 아버지 역할 때문이었다. 여행은 꿈을 꿀 수 없었다.

퇴직 후에는 밭 3개, 논 열 마지기를 지으면서 자식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함에 뿌듯해하셨다. 직장 다니실 때의 습관처럼 해가 뜨기 전부터 일해서 해진 후 달을 보고 들어오셨다.

평생 세월을 때려잡았다는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하셨던 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구부정해진 몸으로 어머니 산소를 돌보고 절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한복을 차려입고 조부모와 부모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전쟁을 겪은 아버지는 9살부터 가장이 되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모욕당하고… 그 땀의 시간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안 봐도 훤히하다. 결국 아버지가 이겨낸 건 세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세월 앞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식으로 맞섰다.

아버지를 잃고 울고 있던 9살 어린아이의 어깨에 증조할머니가 지게를 만들어 지어줄 때부터 아버지 어깨의 짐은 한순간도 내려올 일 없이 계속 쌓여만 갔다. 새벽밥 먹고 집집마다 자전거 타고 편지 배달 다니던 시절, 먼 단위로 가는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점심도 거르고 배달 다니다 어느 집에서 준 막걸리 한잔에 취기가 돌아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고단했던 하루를 쏟아놓으셨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여력이 없던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지 못하고 “술주정 말고 주무셔라”하면 아버지는 늘 밥상을 얹으셨다.

참으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렇게 밥상을 둘러메치던 기운 다 어디로 가고 아버지의 허리는 하루가 다르게 굽어갔다. 굽은 허리로 날씨에 순응하며 아버지는 흙을 만지고 사셨다. 위암 수술을 하고 2박 3일 누워 있는 시간도 아깝다고 하시며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땅에서 죽어야지 병원에서 죽을 수는 없다’ 각서를 쓰고 퇴원하여 눈에 물을 대셨다.

다질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땅처럼 살살 몸을 달래가며 일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진통제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하셨다. 급격히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큰 병원에 가자는 말씀도 거절하시며 그저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만 하셨다. 날이 갈수록 진통제를 맞는 횟수가 잦아졌고 복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온몸에 암이 퍼져 병원에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진단

과 함께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남은 하루하루가 부디 편안하시길 바랐지만 아버지는 온전한 정신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시며 진통제조차 거부하고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

아버지의 암 진단으로 남은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온 가족이 몹시 흔들릴 때도 아버지는 의연하게 준비하셨다. 무더위 받고랑에서 고추 따면서 혼잣말처럼 부르시던 구슬픈 노래처럼 담담하면서도 강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모이게 하고 골고루 땅을 주면서 팔지 말고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라 하셨다.

도회지에서 사는 자식들이 고향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라셨고 손바닥만한 한 뼘 땅이라도 주고 싶어 씨앗을 틔우고 피땀 흘리며 김을 매면서 그 외롭고 긴 세월을 견디셨다. 암세포와 싸울 때보다 혼자 농사짓는 시간이 더 외로웠다고 하셨다.

암 진단 후에는 매일 매일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하셨다. 어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타고 유년 시절도 갔다가 아버지의 군대 시절도 다니고 직장 다니던 시절로도 시간 여행을 했다.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3개월은 사라진 것들 그리고 금방 사라질 것들을 꺼내서 표현하려 애쓰는 애처로운 시간이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시점엔 늘 아버지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만 있었다. 늘 삶의 중심에 타인이 있었다. 너무나 사소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을까 싶은 순간들까지 아버지는 무심히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무심히 넘겨버릴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로 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 같았다.

자식들 신혼여행으로 외국 갈 때도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작년 경로당에서 어린이날 관광 간다고 “내 평생 처음 맞는 어린이날



이다” 말씀하실 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어린 시절 바쁜 아버지 때문에 나의 어린이날 추억이 없다고 원망할 줄 알았지 아버지의 어린이날은 상상조차 못 했기에 그랬다. 아버지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고 흙 속에 파묻혀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논두렁이나 둘러 보시는 게 행복한 분일 거로 생각한 나이기에 아직도 목이 멘다.

섬처럼 외로워 보여 몽클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버지는 겨울 파처럼 곳곳하게 훌훌 얹매임 없이 자유롭게 떠날 준비를 하셨다. 참으로 담

담히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아버지가 느끼는 슬픔을 감춰줄 수는 없었다. 바빠서 감정도 사치였다고 말씀하시며 아무리 환하게 웃으셔도 그늘이 있었다. 살아온 시간이 참 외로우셨으리라.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암이요 죽음이라면 절망 속에서 세상을 원망한다 해도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을 텐데 아버지는 그런데도 “만일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이렇게 살았을 거야” 초연히 담담하게 받아들여셨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셨으리라.

어린 시절 아버지는 연필 깎는 칼을 달라고 해서 손과 발의 굳은살을 깎아내셨다. 어린 아이였던 나에게 그 모습은 신기하게도 피는 나지 않았지만 매우 아플 것 같았다. 세월의 웅이가 나무처럼 사람에게도 굳은살로 박히는 것인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버지의 굳은살은 깎지 않으면 아파서 견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고단한 시절 운동화 한 켤레 살 돈을 절약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급되는 구두만 신었던 아버지의 발엔 못이 6개나 박혀 퉁퉁 부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손발에 이렇게 못이 박혀 매일 밤 연필 칼로 깎아내셔야 했을까. 아버지는 무조건 가족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게 역할인 줄 알았다. 못 박힌 발을 만져드리는 마음이 너무 죄송했다. 발자국마다 가족을 돌보느라 갖은 고생 다 하시고 이제 비로소 좋은 시절 만났는데 떠나셔야 했던 아버지.

“너는 너무 애쓰지 마라. 한도 끝도 없다. 즐겁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내고 내가 사는 세상으로 오너라.”

한계의 시간 앞에서 끝까지 남을 가족들을 위로하시던 아버지. 성인 성자는 아니지만 가난의 삶을 실천하신 분,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참담하였지만 그 어느 성인 성자보다 성스러운 모습이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의 순례길, 아버지의 힘겨움은 돈에만 있지 않았다. 본인은 참 비루하게 살아왔노라 말씀하시지만 그의 손과 발이 그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버지의 순례길은 그 어느 성인 성자보다 거룩한 길이었다.

돌아가시기 직전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으니 “마당 의자에 앉아 봄별을 찍고 싶다” 하셨던 말씀이 마음 저리게 남아있다. 긴 시간 품고만 계셨을 말씀 “쉬고 싶다”는 말씀을 끝으로 작년 늦가를 평생 농부이셨던 아버지는 농부의 날 돌아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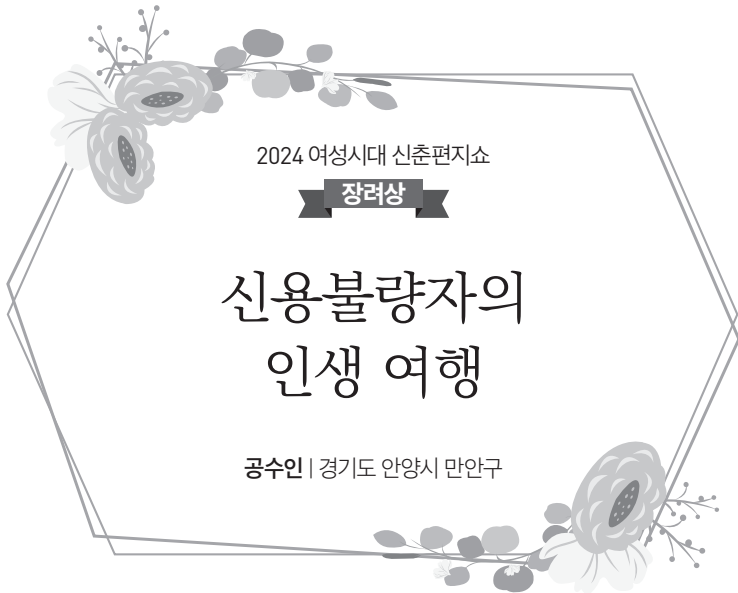
흐드러지게 핀 꽃 한 번 제대로 구경 못하고 여행 한 번 못 가신 아버지의 영정사진은 경로당에서 어린이날 가셨던 여행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계셨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우리 가족은 세상에 없는 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고향 집에서 떠나올 때마다 우리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봐주시던 아버지의 온기를 느낀다. 살면서 더는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 드리고 이별했지만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언덕이며 훌륭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흔적을 남기셨는지 알 수 있었다.

무조건적인 내 편이 사라졌다. 더 이상 나한테 길을 가르쳐줄 아버지가 안 계신다. 나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날 염려해 줄 사람이 하나 준 것뿐인데 온 세상이 흐리다. 황망한 내 마음에 흘러바람 곁을 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날씨가 맑으면 맑아서 좋고 흐리면 흐려서 좋았다. 내 여행은 행복했고 행복하단다.”

하늘 여행은 어떠세요? 꿈에서라도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신용불량자의 인생 여행

공수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내가 대학생일 때 명예퇴직하신 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고 집안 사정은 더 안 좋아졌다. 그때부터 나는 성적 장학금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돈을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녔다.

이후로 방학 때 몇 번 아버지를 따라서 카드사 캐피탈 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선 학생증과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보여주면 한 학생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었다. 장학금을 받는 나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카드사에 보여주고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은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지만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아버지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때의 난 대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기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

하지만 아빠는 학자금 대출금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셨고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어 결국 나는 몇 천만 원의 대출금을 떠안고 '신용불량자'라는 또 다른 신분을 얻게 되었다.

신용불량자가 된 20대의 나는 내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일치기로 서울 여행을 떠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출금을 갚을 것인지 상세하게 적어서 서류를 제출하면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갚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길 들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나는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손에 쥐고 경남 마산에서 서울 영등포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까지 여행 아닌 여행을 했다.

다행히 바로 서류가 통과되었다. 이후로 나는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하지만 나 혼자 대출금을 갚기에는 금액이 상당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내 생활비로 사용하고 대출금은 아빠가 납부해주시기로 했다. 나는 매달 아빠가 넣어주시는 돈으로 아빠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

그렇게 몇 년에 걸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감사하게도 통장 거래는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로서 사는 불편함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지인의 업무를 도와주려고 신용카드 신청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신용이 안 좋아서 신용카드를 못 쓰는데 만약 내가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을 들키면 어떡하지?’

나는 온갖 핑계를 대며 카드 발급 신청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료는 카드를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동료와 불편한 감정만 남기고 끝까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니 신청하지 못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이번에는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다.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남자친구는 내가 신용불량자였던 것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취업에 성공해서 은행에 들어가면 나에게 대해서 어디까지 알게 될까? 왜 많고 많은 회사 중에서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다는 걸까? 도대체 아빠는 나를 어디까지 불편하고 슬프게 할까?’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헤어질 각오를 하고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은 너에게 내가 짐이 된다면 헤어져 주겠다고 쿨한 척 망언까지 내뱉어 가면서 말이다. 내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왜 이제야 말해 주냐면서 이건 아무 일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사이도 변함없을 거라고 했다. 그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며 남편은 14년째 국책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내 신체가 서러워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다. 아빠에 대한 감정은 원망을 넘어서 증오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아빠라는 존재를 내 인생에서 지우기로 했다.

그리고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과거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부족함 없이 살았다. 현재의 삶이 행복해서 인생에서 아빠를 지운 내 선택에 뿌듯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 아빠를 지우고 산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다가 작년에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20년 만에 고향인 마산 땅을 밟게 되었다.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아빠가 떠올랐다. 그동안 언니를 통해서 가끔 소식은 들었지만 최근에는 언니도 아

빠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 조문은 가면서 내 아빠 소식은 모르다니...’

나를 힘들게 한 아빠니까 자식 못 보고 사는 고통 정도는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계신 마산으로 가는 길에 오르니 복잡한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아직 아빠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를 만나러 마산으로 가야겠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발걸음이 무거운 여행이 될 것 같다.

나도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보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서툴고 어려웠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식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은 아직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아빠를 마주하는 여행에 성공한다면 나이 드신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빠와 술 한잔 기울이고 싶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다.

누군가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당연한 일상이 나에게서는 큰마음 먹고 떠나야 하는 여행이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 여행은 꼭 성공해야만 할 것 같다.

내 나이 마흔셋. 머지않은 미래에 마산행 기차를 타는 여행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망, 증오 같은 감정은 다 던져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서울행 기차를 탈 수 있기를... 만약 그 여행에 성공한다면 나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군대 가기 전 당구장 사장님과 1박 2일

조성문 | 부산시 사하구 동매로

20년 전 대학교 1년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청춘에 취해 보내고 겨울을 맞았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아마도 마음이 빙하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동네에 단 하나뿐이던 유치원을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친구가 된 남자 넷. 그 이름도 유치한 햇님반 멤버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우리는 아지트인 당구장에 모였다. 주제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보다 더 두려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것! 그렇다. 우리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당구장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 갓 스무 살을 넘긴 그때의 우리는 정말 심각했다. 곧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해야 한다는 낯선 세계에 대한 극도의 두려

움이 우리를 감쌌다. 그 두려움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맥없이 종이 인형처럼 허우적거렸다.

“이런 정신 상태로 진짜 아무것도 못 한다! 우린 지금 정말 나약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딱히 오냐오냐 키워진 것도 아니고 살림이 아주 넉넉한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함을 느끼며 자란 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였다.

“우리 입대까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노?”

“한 달 정도?”

“선배며 교수님, 친척들한테 다 조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다. 그냥 버텨라.”

“그 말이 맞을 테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희석시키기엔 역부족이야. 입대 전까지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근데 모르겠다~ 대체 뭘 해야 하노?”

시간은 마냥 흘러갔고 고민은 더 깊어졌지만 별다른 수가 나오지 않았다. 답답함에 고개를 뒤로 젖혔는데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유레카!” 그 당구장엔 특이하게 태극기가 달려 있었다. 사장님이 직업군인으로 그것도 말하면 누구나 알법한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셨다. 엄청난 군대 자부심이 있으셨기에 항상 군화에 군복 바지, 차에는 본인이 복무한 부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맞다!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지? 저분이야말로 대한민국 군대의 표본 아이가?”

우리는 테이블을 닦고 있던 사장님을 불러 앉혔다.

“뭘데? 아까부터 얼굴들이 와 그라노? 무슨 일 있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사장님은 크게 웃으셨다.

“와, 느그들 마음이 참… 아저씨는 억수로 감동했다. 느그 최고다!”

사장님은 진심으로 감동을 받으신 듯 짜장면을 시켜 주셨다.

“군대는 어차피 가 봐야 하는 곳이고 훈련소에서 다 배운다. 또 자대 배치받아서 거기서 더 배우면 된다. 군대도 다 사람 사는 데고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무조건 버텨라.”

실망스러웠다. 다들 하는 소리. 버텨라, 힘내라, 이겨내라.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 군대에서 필요한 뭔가를 미리 배우고 싶었다. ‘역시나 괜히 물어봤어. 그냥 짜장면이나 먹자~’ 하는 순간 사장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니들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가자. 이번 주 토요일 1박 2일로 떠난다!”

우린 눈이 휘둥그레졌다.

“백날 천날 이렇게 고민만 한다고 뭐가 해결되겠나? 아저씨 시골집에 가서 훈련소 가기 전 예행연습이나 하자. 정신교육도 좀 하고~.”

옆에서 듣고 있던 당구장 사모님은 우리보다 더 당황하시며 무슨 작당 모의냐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데려다 뭘 하려고 하냐고 소리를 치셨다.

“하 참 이 사람아~ 군대 가기 전에 예행연습하고 싶다 안 하나? 얼마나 기특하노?”

우리는 눈짓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당황스러움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캠핑 같은 거죠?”

“캠핑? 군대가 무슨 보이스카웃이가? 캠핑은 무슨 캠핑이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30년 군 경력을 가진 분의 추진력은 막을 수는 없었다. 갈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했지만 어느

새 토요일이 되었고 이미 우리 넷은 사장님의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사장님이 군가를 부르고 계셨다. 주먹을 불끈 쥐고 마구 흔드면서 말이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란한 동작에 주눅이 들었다.

“사장님, 히터 좀 틀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뭘라카노! 군대에 히터가 있을 것 같나? 창문 확 더 여뽀까?”

군가가 울렸지만 차 안은 고독 그 자체였다. 정말 훈련소로 가는 것처럼 떨렸다. 주변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몇 시간 뒤 시골길에서 집이 드문드문 보이다가 그마저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차는 점점 더 산으로 산으로 들어갔다. 급기야 휴대폰의 안테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린 후에야 차는 멈췄다.

“내리자.”

“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차로 못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간다.”

그렇게 15분쯤 올라가니 잘 보존된 집 한 채를 볼 수 있었다.

“자 다 왔다. 여기가 아저씨 시골집이다.”

날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사장님이 막아 세웠다.

“어디 가노?”

“추워서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화장실? 군대 화장실이 어딴노? 저기 뒤로 올라가서 땅 파서 해결해라.”

“에? 군대에도 화장실은 있잖아요?”

“훈련 나가면 없다. 전부 땅 파서 해결한다. 얼른 갔다 온다. 마지막에 잘 덮어야 한대.”

공공 언 겨울 산을 나뭇가지로 파며 괜히 따라왔다는 생각이 엄습했고 정말 군대가 이렇다면 어찌지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사장님은 신난 듯 미소를 띠며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내려놓고 텐트를 치기 시작하셨다.

“오늘 우리가 잘 방은 여기다.”

“여기서 잔다고요? 왜요?”

“군대가 집처럼 편한 줄 아냐? 불편함을 감수해라!”

다들 당황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해보자는 마음이 컸는지 어리바리하면서도 사장님을 도왔다. 우리가 원하던 대로 좋은 경험치가 될 수 있겠다 생각도 들었다. 텐트 치는 것을 난생처음 해봤는데 알려주시는 대로 해보니 크게 어렵지 않았고 완성되는 것을 보니 뿌듯한 마음마저 들었다. 텐트 안에서 사장님이 직접 공수해 온 전투 식량을 먹었고 생각보다 먹을만했다. 거기에다 후식으로 건빵까지 맛봤다.

“아, 사장님 방귀 껴죠?”

“야 짜숙아 화생방 모르나? 이것도 훈련이다. 훈련!”

우리는 킬킬거리며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산 중턱에 있는 곳이라 그런지 추위도 추운데 뭔가 무서웠다.

“이 주변에 묘지가 있거든? 이번엔 담력 테스트다.”

“와~ 안돼 안돼 이건 못해요. 진짜~.”

우리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텐트 구석으로 기어들어 갔다.

“군대 가면 다 해야 한다. 진짜다!”

겁에 질렸지만 또 어느새 우리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집 뒤로 한참을

올라가고 있었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지만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던지 우리는 무서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꼈었다. 별뿔뿔이 떨어지는 것도 그때 처음 봤다. 어둠에 적응되니 어느 정도 앞도 보이고 무서움도 사라졌다. 10분 정도 어둠을 뚫고 올라가 보니 두 개의 묘지가 있었고 중앙에는 어느새 올라온 사장님이 서 있었다.

“자! 올라온다고 고생했다. 군인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가파른 산과 더 칠흑 같은 어둠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 그것들과 항상 싸워야 한다. 그때마다 지금 잡은 손! 전우가 있다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말고 함께 헤쳐 나가길 기대해 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려던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지금 울면 평생 놀림거리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자! 어깨동무 실시!”

자연스럽게 어깨동무하며 우린 서로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뭔지 모를 뜨거움이 느껴졌다. 그건 아마도 앞으로 헤어질 친구들에 대한 걱정과 새로운 곳에서 펼쳐질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섞인 묘한 감정이었다.

“현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천지다.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고 길러 준 어머니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이 젊음~ 조국을 위해 잠시 바쳐라!”

누가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대단했다. 그 상황이 우습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어머님의 은혜 발사!”

“나실 때 과~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 콧물 다 쏟아냈다. 뭔가 후련해지고 있

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담력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텐트로 내려와 사장님의 군대 이야기와 노하우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정말 춥고 바닷도 축축했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폭 잤던 편안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텐트 밖이 소란스러웠다. 이걸 또 무슨 훈련일까? 텐트 지퍼를 열어 나가보니 당구장 사모님이 솔뚜껑 위에서 삼겹살과 김치를 굽고 계셨고 잡채며 지짐이들, 막걸리와 소주가 펼쳐져 있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이 동네 사는 전역자 친척, 친구, 후배들을 다 연락해 모으셨고 사모님은 당구장 사장님이 우리를 심하게 잡을까 걱정이 되어 오셨다며 “하루 야영하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집만큼 편하겠나? 아마 역수로 힘들겁니다. 고기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갔다오나!”

우리는 감사함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었다. 거기에 모인 전역자들의 각기 다른 군대 이야기와 노하우, 믿어지지 않는 무용담들을 들으며 그렇게 입대 전 예행연습을 무사히 마쳤다.

전역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1박 2일은 나에게 값비싼 추억을 만들어 주었고 내내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지금은 다들 가정 돌보고 사회생활 하느라 바빠서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어리고 젊은 날 그렇게 막막했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무슨 일이든 버티고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그때 자식 일처럼 챙겨주신 당구장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군 생활 잘하는 법을 알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근데요 사장님~ 군 생활보다 사회생활이 더 힘들다는 건 그때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내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는 소가 있었다. 외양간은 두 칸이었다. 엄마가 시집오면서 데리고 온 암송아지는 우리 집 씨암소가 되었다.

씨암소는 외양간 오른쪽에 항상 있었고 씨암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좀 크면 비어 있는 옆 칸에서 키웠다. 송아지 시세가 좋으면 어미젖을 떼자마자 우시장에 내다 팔고 송아지 값이 좋지 않으면 비어 있는 외양간에서 키우다가 팔곤 했다.

팔려 가던 어린 소들은 우시장으로 가는 트럭을 타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울부짖는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의 운명을 아는 것 같았다. 코에 매인 코뚜레 때문에 아무리 덩치 큰 소라도 코뚜레를 잡고 끌어당기면 소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트럭에 오른다. 트럭에 오르는 대부분의 소는 아파서 그런지 떠나기 싫어서 그런지 왕방울만 한 눈에 눈물이 그렇그럼 맺힌다.

송아지가 팔려 나가는 날엔 씨암소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온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운다. 며칠을 그렇게 운다. 목이 쉬도록 운다.

그래도 나는 소가 트럭에 실려 팔려 가는 날이 좋았다. 아버지와 소장수가 한참 동안 가격 흥정을 하다가 소를 트럭에 싣고 가면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용돈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친구들과 학교 갔다 오면서 아이스크림 사서 한 입만 달라고 매달리는 친구들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고 그러다 같이 먹는 아이스크림 맛은 더할 나위 없이 맛있었다.

작은누나도 소가 팔리는 걸 좋아했다. 아버지가 작두로 짚을 잘라 놓으면 소죽을 끓이는 것은 작은누나 일이었기에 소가 줄면 그만큼 일이 줄어들어 좋아했다.

작은누나는 소의 멀건 눈을 닦아 우직하고 순한 사람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거스르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소죽 끓이는 일은 거의 작은누나가 도맡아 했다.

나는 집에서 막내라 거의 일을 시키지 않았다. 큰형은 장남이라 일을 하지 않았고 큰누나는 성격이 까칠하고 일이 서툴러 많이 시키지 않았다.

나이 터울이 많은 큰형과 큰누나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거의 외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같이 산 날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작은누나와는 어릴 때부터 늘 같이 살았다.

누나는 소죽을 끓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이 끓으면 짚을 넣는다. 가끔 누나도 친구들과 놀고 싶거나 공부해야 할 때면 작대기를 가지고 솔뚜껑을 계속 “톡톡” 쳤다.

“왜 그리 솔뚜껑을 치노?”

“솔뚜껑이 빨리 눈물을 흘려야 짚을 넣지.”

“그라모 싸게 때리라! 아파서 빨리 눈물 나구로.”

“하하~ 그럴까?”

누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겨울에 여물을 끓일 땐 엄마가 솥 안에 양동이로 물을 받아 넣어두셨다가 소죽이 끓으면 양동이를 꺼내어 나를 씻겨 주시곤 했다. 가끔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신 날은 소죽 끓이는 솥에 달걀 두 알을 넣어 삶아 밥을 먹고 밤참으로 주시기도 했다. 그래서 작은누나와 나는 소가 팔려 가는 날이 좋았다.

내가 5학년 봄 때 일이다. 봄이 되면 아버지는 씨암소를 데리고 논밭을 갈러 나가시는데 그해 봄에는 씨암소 대신 옆에 매여 있던 젊은 암소를 몰고 밭을 갈러 가셨다.

소 길들이는 곳에 나도 아버지를 따라나섰다. 아버지는 고삐를 바짝 잡으시고 소와 함께 밭으로 향했다. 암소는 가기 싫다고 연신 고개를 내저었지만 코뚜레 때문에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왔다.

밭에 도착한 아버지는 덤지도 않은 봄날이었는데 벌써 땀에 흠뻑 젖어 계셨다. 암소에게 멩에를 씌우고 쟁기를 연결하고 큰 소리로 “이러!~”하고 외치셨지만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길게 늘어진 고삐로 등을 세게 내려치면 그제야 소는 잔뜩 성이 나서 있는 힘껏 달린다. 소가 앞으로 튀어 나가면 아버지는 쟁기를 땅속 깊숙이 박아 넣었다. 계속 앞으로 가던 소는 10미터도 못 가서 지쳐 허가 만발이 나온다. “헉헉” 대면서 멈춰 서면 아버지는 또 고삐로 등을 치기를 몇 번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소는 점점 지치고 길들기 시작한다.

“이러!~ 자라!~ 워!~”

아버지는 고삐를 오른쪽 왼쪽으로 치면서 가르친다. 몇 날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린 암소는 밭을 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집 씨암소는 가

꿈 내가 받을 갈아도 될 만큼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했다. 일을 마치고 고삐를 놓아주어도 혼자서 집에 와 있었다. 그런 씨암소를 두고 젊은 암소를 길들이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아버지, 와 씨암소는 올해 일을 안 합니까?”

“나이도 들고 쪼매 아프다.”

그 말을 듣고 외양간에 가서 자세히 보니 씨암소 목 부분이 많이 부어 있었다. 그 부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어올랐고 아버지는 끝내 수의사를 부르셨다. 하지만 수의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진찰료만 받고 돌아갔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밖에서는 개구리 소리, 소쩍새 소리가 세상천지를 메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와 아버지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다.

“오늘 소는 길들었는교?”

“힘이 좋기는 한데 씨암소만 못하지.”

“오늘 왔다 간 수의사는 뭐 이야기 했소?”

“소가 암에 걸렸다네. 얼마 안 있어서 죽으끼란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엄마는 약간 흐느끼며 말했다.

“죽으면 집 앞 당산에 묻어 주어서더.”

“내도 그러고 싶은데 아들 공부도 시키야 되고….”

그리고 한동안 대화가 없었다. 고단했던 나는 그만 잠이 들어 버렸다. 새벽녘에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소 앞에 멍하니 서 계셨다.

날이 밝자 소 장수가 와 있었다. 소 장수는 한동안 씨암소를 살펴보고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재, 이거 우시장에는 안 되고 바로 도축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지나모 죽겠는데…”

한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는 소 장수가 주는 하얀 봉투를 허름한 바지 주머니에 넣고는 외양간에 가서 고삐를 풀어 소 장수에게 주었다. 소 장수는 천천히 소를 몰아 나무 기둥만 있는 대문을 지나 트럭으로 갔다. 아버지와 나는 트럭까지 씨암소와 같이 왔다. 트럭에 태우기 위해 널빤지를 깔고 고삐를 당겼다. 트럭에 탈 때 씨암소는 늙어 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삶의 끝을 아는 것인지 저항 한 번 하지 않았다. 트럭에 올라타는 씨암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 맺혀 있었다. 나는 소에게 잘 가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나도 그날만큼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씨암소는 고개를 돌려 우리 집 외양간을 보았다. 나도 소와 함께 집을 바라보았다. 대문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는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다.

엄마의 영혼의 단짝, 엄마의 시집과 함께 온 여행의 동반자. 엄마는 할머니에게 혼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씨암소 앞에 한동안 서 계시다 오시곤 했는데… 트럭은 씨암소와 함께 그렇게 마을을 떠나갔다.

송아지가 팔려 갈 때마다 울던 씨암소. 그날 밤은 엄마가 씨암소가 되어 흐느껴 울었다. 그 후로도 가끔 엄마는 혼잣말로 “내가 돈이 좀만 있었어도 당산에 묻어 줘요인데…” 말씀하곤 하셨다.

2024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장려상

어디쯤 왔을까 언제까지일까

애청자

경남 창원이었다. 내 나이 5살 무렵부터 기억이 난다. 2층짜리 건물도 하나 없는 넓은 주택가. 뒤쪽엔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이 있었고 우린 재개발 지역에 살았다. 골목을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현관이라도 할 것도 없는 벽에 여닫이문이 하나 나왔다. 골목 두 번째 집이 우리 집이었다. 문을 열면 수도꼭지 하나와 세숫대야가 있고 오른쪽에 방 하나. 그 방에서 네 명의 식구가 살았다. 아버지, 엄마, 나, 동생.

나의 이름은 오OO. 모든 사람이 오OO이라고 불렀으니 나는 당연히 내가 오 씨인 줄 알았다.

여동생은 내가 다섯 살 때 태어났다. 한없이 이뻐다. 6살 때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좁은 골목길을 뛰어가다 의도치 않게 앞서는 동생의 어깨를 쳤다. 동생이 땅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는데 그걸 본 엄마가 나를 정말로 개 잡듯 때렸다.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엄마는

보란 듯이 나를 더 때리고 다리에 멍 자국을 만들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사람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미움받을까 봐 미리 엄마가 나를 모질게 대했던 것 같다.

엄마와 그 남자는 술을 좋아했고 그 남자는 특히 노름을 좋아했다. 그 좁은 골목길 안에 15가구 남짓 살았는데 우리 집이 특히나 자주 싸웠다. 싸우면 항상 끝을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동생을 안고 골목 안 이웃집을 전전해야 했다.

한 번은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턱뼈가 부서져 수술을 크게 했다. 어린 나는 무덤덤하게 엄마 옆에서 병실을 지켰다. 어린 나에게 그런 환경은 익숙했고 점점 더 무덤덤해져 갔다.

엄마는 그 남자와 매일 싸워댔다. 그리고 얼마 후 이혼을 한다고 했다. 문제는 동생을 데려간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자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동생을 서울로 데려간 남자는 아이가 보고 싶다는 엄마의 연락에도 한 번도 동생을 보여주지 않았다. 후에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어색해져 버린 후였다.

7살 무렵 나는 진주로 이사를 왔다. 당시 외할머니는 지역 시멘트 공장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내가 알기론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다. 엄마는 그 근처 현장에 나무로 급하게 지어 올린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허허벌판 공사 현장에 살던 나는 친구도 없고 놀 곳도 없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 유치원에 보냈는데 처음 유치원에 가는 날 이름표에 ‘유OO’이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 나는 오OO인데?”

“아니야 유OO이야.”

적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잘 모를 나이여서 그저 그렇게 흘려보냈다.

거기서 지금의 나의 아버지와의 인연이 맺어졌다.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의 우리 아버지. 엄마와 동생의 아버지가 이혼할 때쯤 아버지는 엄마 식당에 자주 오던 단골손님이었다. 농사를 짓는 노총각이었던 아버지는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매일 엄마를 보러왔다. 나랑도 잘 놀아주었다. 8살이었던 나는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눈치가 있었는지 삼촌의 차를 타고 돌만 가던 길에 내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돌이만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부를게요.”

어린 나는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다. 나는 주로 엄마가 아닌 외할머니의 식당에서 먹고 지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다섯 살 무렵 전까지 나는 쪽 그렇게 외할머니가 키워주었다고 한다.

공사 현장의 공사가 끝나자 엄마는 식당 문을 닫았다. 그 후로 엄마는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나는 데려갈 수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그 시절 시골에서는 애 딸린 여자가 노총각과 결혼해서 사는 걸 굵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지.

외할머니는 우리가 살 방을 진주 시내에 있는 장대동 여관에 얻었다. 여관 주인이 외할머니의 친구여서 외할머니가 바쁘실 땐 그분이 나를 챙겨주시리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장대동은 그 도시의 대표적인 율락가였다. 밤이 되면 네온사인이 불을 밝히고 립살롱, 여관 등이 몇십 개씩 모여 있었다.

철없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네 누나들에게 요구르트를 얻어먹고 형들과 놀러 다녔다. 지금 생각하니 그 누나들은 립살롱에서 일하는

아가씨였고 동네 형들은 대부분 룸살롱 마담의 아들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랬다. 그들은 늘 나에게 잘 해줬다.

외할머니는 저녁에 퇴근하면 공장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로 와서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다음 날 새벽에 식당으로 출근하셨다.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일도 힘들었을 텐데 매일 나의 아침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 하나만 덩그러니 동네에 놔두고 일 가는 게 불안하셨는지 퇴근하면 부랴부랴 나에게로 오셨다.

하지만 항상 나는 집에 없었다. 나는 학교에 갔다 오면 텔레비전 밑에 할머니가 놔두고 가신 천 원짜리 두 장을 가지고 사방팔방 놀러 다녔다. 할머니가 저녁값이라며 놔두고 가신 돈이었지만 나는 초코우유와 빵을 사 먹고 나머지는 오락실에서 다 썼다. 오락실에서 해지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으면 외할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이때의 기억은 재밌기도 하고 외할머니에 대한 애듯함, 정이 생긴 시기이기도 하다. 밤마다 화장실이 무서워 할머니를 밖에 세워두고 일을 봤다. 할머니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뭐든 다 하게 해주셨다. 기죽지 말라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던 9살 무렵 엄마가 나를 보러와 웃을 입히며 얘기했다.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된다고. 친아버지가 나를 보러 오신다고 했다. 무덤덤했다.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눈치 있게만 굴자 했던 것 같다.

만남은 버스터미널 앞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다방에서 이루어졌다. 엄마와 외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친부와 마주했다. 친부는 나의 손을 잡고 잘 먹고 잘 크라고 했고 나는 그냥 “예”라고 답했다. 친부는 흰

머리가 많은 아저씨보다는 할아버지에 가까운 남자였다. 성격은 좋아 보였지만 남자다우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내 위로 형, 누나가 4명이나 있다고 말해주었다. 다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지내라고 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만 원짜리 몇 장을 쥐여 주고 우린 헤어졌다.

3학년이 되면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즈음 어머니가 결혼해 살고 있는 지금의 아버지 집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집엔 할머니도 한 분 계셨다. 그 시절 다 그랬겠지만 말 많은 시골 동네에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라고 소문이라도 날까 봐 어머니는 먼저 시집을 가고 몇 년 후에 나를 데려갔던 것 같다.

행복했다. 신나게 산으로 논으로 뛰어놀다가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무뚝뚝한 시골 사람들이었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와 나는 그렇게 가족이 되어갔다. 5학년이 되어서는 이쁜 여동생도 태어났다. 나와는 성이 다르지만 사랑스러운 내 동생이다.

고등학교 무렵 집이 가난하니 무조건 공부로 성공해야겠다는 마음 뿐이었다. 중학교 때까지는 푹푹하며 공부를 꽤 잘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하고 어머니 휴대폰을 가져다드리다 의도치 않게 문자를 보았는데 거기에 ‘엄마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가 있었다. 옛날에 헤어진 여동생이겠거니 생각했다. 굳이 묻지 않고 몇 달이 흘렀는데 집에 웬 청년 한 명이 인사를 왔다. 엄마는 말했다. 니 형이라고. 웃음밖에 안 나왔다. 형이라니. 엄마는 나를 낳기 전 어린 나이에 시골로 시집을 갔다가 그 형을 낳고는 몸이 약해 쫓겨났다고 했다. 믿고 싶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다.

난 그 후로 뼈뿔어져만 갔다. 배다른 형제자매가 4명이 더 있고 씨다른 형제자매가 3명이 있으니 내 기준에서 난 8남매였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아버지가 하시는 농사일이 잘 안되어 은행 빚

을 갚지 못했다. 논으로 집으로 차압 딱지가 붙었다. 부산으로 대학 진학을 하려 했지만 자취 비용은커녕 등록금도 못 낼 처지가 되어 4년제 대학은 생각도 못했다.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던 거 같다. 술도 먹고 싸움도 많이 하고 집에도 자주 안 들어갔다. 가난한 집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었다.

전문대에 진학했고 등록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 시절엔 친부와 같이 은행에 내방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했다. 10년 만에 다시 본 친부와는 어색했다. 그렇게 대출 신청을 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전문대를 졸업할 무렵 조기 취업해 서울로 갔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지방 전문대 출신에게는 많은 기회도 시간도 주지 않더라. 2년의 서울 생활을 접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다. 어릴 때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었다. 부모님께도 얘기하고 목표가 뚜렷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내려와 준비하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했다. 그때 내 나이 23살이었다. 아내는 20살, 과 CC였다. 함께 취업해서 서울로 갔었다. 그러곤 같이 공부할 거라고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임신이라니! 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미루고 먹고사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처가의 반대가 심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백일쯤 되어서야 장인어른을 뵈러 갔다. 그때의 난 비겁했던 건지도 모른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임신했을 때 바로 찾아뵙고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갔으니 지금에서야 그때의 장인어른 마음을 이해한다.

23살에 아빠가 되고 난 정말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다. 하루 벌 어 아이 분유와 기저귀를 사기 바빴다. 집사람에게도 너무 미안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가진 것도 없이 아들 낳고 시집살이를 5년이나 시켰다. 그런 나를 믿고 따라와 준 평생 고마워해야 하고 내가 평생 사랑

해 주어야 할 사람이다.

어느덧 아이는 16살이 되었다. 나는 이제 겨우 30대 후반이 되었지만 그래서 아직 인생에 대해 논하기엔 어린 나이일지도 모르지만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써놓고 보니 모진 인생의 풍파를 겪은 사람 같다.

이제는 은행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어엿하게 집도 있고 조그마한 사업장도 하나 운영 중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물론 양가 부모님 집도 모두 왕래하고 있다.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 인생 여행은 어디쯤 왔을까? 그리고 언제까지일까?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이 커왔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이제 반쯤 온 것 같다. 인생이라는 언덕을 힘겹게 올라올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듯도 하다.

이제는 평지를 걷듯 주위 풍경도 둘러보고 싶다. 앞으로의 인생 여행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삶만 상상하며 달려갈 것이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끼리의 정은 각박해지는 듯하다. 그래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추억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다들 힘내시고 2024년 대박 나시길! 다시 내 앞에 언덕이 나오겠지만 전보다는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작지만 큰 기쁨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독일에서 친구가 왔다. 일 년에 두어 번 고향에 와서 어떤 기약도 약속도 없이 혼자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다가 미혼인 자식들이 기다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도착하면 우리 집을 먼저 찾는 그녀를 위해 나는 생선, 된장찌개, 짭짜름한 오이지무침, 맵지 않고 맑은 이북식 김치, 나물 반찬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 하나도 남김없이 맛있게 저녁을 먹고 엄마 내복 두어 개를 갖겠다며 잠옷 대신 입고, 엄마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

20년도 더 오래전 휴가 끝에 엄마를 부탁한 적이 있다. 다행히 애들도 울 엄마를 좋아했다. 덕분에 친구 집에서 잘 쉬고, 함께 유럽 여기저기를 여행하다가 귀국하셨다. 그런 인연으로 친구는 자기 친정 엄마보다 울 엄마와 각별했다. 이튿날 엄마를 모신 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여행을 시작한다.

구성지게 추적거리며 비 내리는 날, 요새는 쉬는 날이 반갑다. 나이 들이 이런 것일까? 죄 늘어놓고 순서 없이 일하는 이런 증세가 어른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일까? 싶어서 두루 찾아보았다.

충동 조절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 인내심 부족, 집중의 어려움 또는 과도한 집중, 감정 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어느새 다른 일을 하고, 정리 정돈을 잘하지 못하며,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의 대화에 자주 끼어 들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거나 계획적으로 행동하지 못함! 모든 항목이 내게 해당하는 듯하다. 예방책으로는 메모가 가능한 노트, 수첩, 스마트폰을 항시 휴대하고, 정리함과 휴지통을 여러 군데에 배치하며, 물건은 늘 같은 자리에 두라고 권한다.

며칠 전 주말, 젊은 친구와 서울 풍물시장 근처를 구경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정리가 잘 된 깨끗한 가게도 있고, 엉망진창이라 잘못 하면 그릇을 깨뜨릴 수 있어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아수라장 가게도 있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다. 물건을 고르는 걸로 어떤 유의 사람인지를 알아맞히는 주인장, 그걸로 손님의 급수를 헤아린다니 재밌다. 나는 옛날 그릇 10개와 작고 아담한 화장대를 10만 원에 샀고, 금테 두른 튀르키예 유리그릇 7개를 21,000원에 샀다. 남편은 누가 쓰던 걸 질색팔색하지만, 깨끗이 씻어 쓰면 요즘엔 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라 나는 기분이 썩 좋았다. 나는 젊은 친구에게 내가 아는 맛집들을 두루 가르쳐주고, 우리 둘다 뉴욕서 살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서울스럽지 않은 여행을 했다. 주말에 길은 딱 막혔지만 작지만 큰 기쁨으로 마무리한 하루였다. 이런 소확행 아주 맘에 든다.



벌써 일 년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여성시대 진행을 맡은 지 어느덧 일 년이 되었다. 어린 시절 울 엄마가 집에서 여성시대를 들으실 때만 해도 내가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들의 그런 소식에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역시나 울 엄마다. 덕분에 난 효자가 되었다.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입사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셨다. 아나운서 재직 시절에도 라디오 진행은 늘 해왔었다. 하지만 여성시대가 주는 무게감은 확연히 다르다. 그런 여성시대와 온전히 사계절을 한 바퀴 돌았다.

처음 여성시대를 진행하면서는 적잖이 놀랐다. 두 시간 동안 노래가 고작 두세 곡뿐이라니. 라디오의 생명은 음악이 아니었던가. 디제이도 항상 청취자들에게 사연과 신청곡을 요청한다. 음악을 듣고 그 중간중간에 청취자들의 참여와 이야기를 풀어낸다.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 온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그러했다. 하지만 여성시대는 달랐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사연들을 소개하고 언어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위로와 응원과 공감으로 비로소 음악을 완성했다. 이게 참, 하면

할수록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짧은 문자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청취자들의 인생 이야기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다가온다. 하루하루가 인생 공부인 셈이다.

그런 인생 공부를 함께 나누고 있는 청취자들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연일 때는 따뜻한 위로를 보내며, 기쁜 일에는 가족처럼 함께 즐거워해 주고,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할 땐 머리를 맞대어 주신다. 달리 여성시“대”학교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린 한 학년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난 신입생으로서 말이다.

앞으로 또 함께하게 될 여성시대와의 한 해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신입생은 지났으니, 작년보단 더 나아지리라. 늘 같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된다. 폭염이 오는 여름에는 등골 오싹한 무서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가을에는 추석 명절 이야기, 겨울엔 크리스마스 와 더불어 따뜻한 이야기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월간 여성시대 글쓰기는 적응이 안 된다. 이걸 좀 더 시간이 걸리려나….



IBK기업은행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변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본행사의 상품 제공은 2023.08.01부터 2025.07.31까지 유효하며, 2025.08.01 이후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품사외신청서 및 인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의 금융 활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허락 사항입니다.) 개인 및 일반 금융 인가(주)이기 때문에 (주) 725-999, e-mail: ibkcs@ibk.co.kr



IBK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IBK
BOX

IBK 대출통로 BOX

준법감사인 심의결 제2024-4560호(2024.03.20) 유통거래(2025.03.19) · 대출통로 BOX 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6-7633) 혹은 IBK고객센터(1544-2569)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에 관련된 불이익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장기간 대출 완료를 면제할 경우, 모든 완료를 반복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회금이 부정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가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불고, 담보충족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환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첨 가격 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한 해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